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개화기 시가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宋 聲 鍾

2009年 8月

개화기 시가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指導教授 孫 五 圭

宋 聲 鍾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년 6월

宋聲鍾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 _____ (인)

위 원 : _____ (인)

위 원 : _____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9년 8월

개화기 시가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宋 聲 鍾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 五 圭

이 연구는 개화기 시가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살펴서 그것을 어떻게 교수·학습법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구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개화기 시가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의 대상을 정하였다. 왜냐하면 개화기 시가는 다양한 하위장르로 나누어지며, 학자들마다 장르의 인식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화기 시가라는 용어 속에는 동학가사, 의병가사, 『독립신문』에 게재되었던 애국가류,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던 가사, 개화시조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나는 개화가사와 개화시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개화기 시가를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현 문학 교육에서 개화기에 등장한 시가 문학으로 창가와 신체시를 교육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개화기 시가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개화기 시가 문학이 형성된 개화기의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전근대적인 봉건체제에서 서구식 근대화로의 변혁기에 처해 있었다. 1876년의 개항을 시작으로 개화된 문화가 들어오면서 전통과 서구의 근대적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양

* 이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장에서는 개화기 시가의 하위장르를 개화가사, 개화시조, 창가와 신체시로 나누어 그 속에 담겨진 장르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화시조는 교술성을 개화시조에서는 개방성을 창가와 신체시는 민중성과 수용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Ⅳ장에서는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를 살펴보았다. 개화기 시가는 크게 당 시대의 긴박함과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항일 독립정신과 민족의식고취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문학의 기능으로 독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술성으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V장에서는 교육적 활용과 지도 방안을 살펴보았다. 개화기 시가는 현 문학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 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화사상과 저항의 독립가류가 주를 이루었다. 이를 자료로 하여 현 문학 교수·학습법 중 중요성이 대두되는 대화중심교수법을 적용하여 지도안을 구안하였다. 문학 교육에 있어 문학의 당위는 옛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미의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확인케 하여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개화기 시가문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그 전 시대의 문학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현대의 문학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화기 시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문학사의 발전 경로를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며, 문학 문화 발전이라는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목 차

<國文抄錄>

I. 서론	1
II. 시대적 상황과 근대성.....	6
1. 사회 · 역사적 상황.....	6
2. 사상사적 조류와 변화.....	9
3. 문학의 변모 양상.....	11
III. 역사 장르와 장르 의식.....	13
1. 개화가사와 교술성.....	13
2. 개화시조와 개방성.....	23
3. 창가와 민중성.....	31
4. 신체시와 수용성.....	35
IV.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	40
1. 항일 독립정신과 민족의식 고취.....	40
2. 전통과 서구와의 혼재.....	42
3. 사회적 기능과 민중교화.....	43
V. 교육적 활용과 지도 방안	45
1. 교육적 의의와 활용.....	45
2. 대화 중심의 교수 · 학습법.....	50
3. 대화 중심 문학 수업 모형 제시.....	52
4. 대화 중심 문학 교수 · 학습 지도안 구안.....	60
VI. 결론.....	66
※ 참고문헌.....	69
※ Abstract.....	73

I. 서론

한국사에서 ‘개화기’라는 용어는 흔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그 기점을 두고는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개화기란 개념 자체가 개화와 척사의 두 주류의 시대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개화와 일방에서 주도하는 시대의지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한 작품의 시대정신을 중시해서 저항기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²⁾ 하지만 저항의 표출도 근대의식에 대한 자각의 소산이며, 그것이 개화와 일방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민족적 역량이 발현된 시대정신이 주가 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넓은 의미의 개화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일반화한 역사 단계인 개화기를 별개의 명칭으로 취급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개화기라 하고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개화기의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이 시기의 시가 문학은 형식면에서 기존의 전통 양식인 시조, 가사, 잡가와 함께, 서구 문학의 유입으로 등장한 신체시와 창가와 같은 외래 양식도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개화기 시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있어서 개화기 시가라 할 때, 그 하위 범주도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가. 개화기시가³⁾

나. 개화시, 개화가사, 창가, 신시⁴⁾

다. 애국가사(동학가사, 판소리, 애국, 독립가, 항일가 및 창의가, 구전민요)⁵⁾

2) 박을수, 『한국개화기저항시가론』, 아세아문화사, 2001, p. 21참조.

3)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58, pp.445~450.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56, p.48.

4) 송민호, 『한국시가문학사·하』, 『한국문화사대계 V·언어문학사』, 고려대·민영, 1967.

- 라. 가사, 시조, 창가, 민요, 한시⁶⁾
- 마. 가사, 창가, 시조, 한시, 잡가⁷⁾
- 바.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⁸⁾
- 사. 애국, 독립가, 개화가사, 시조, 한시⁹⁾

이상에서 논의된 개화기 시가의 하위 범주를 구분하는 것을 살펴볼 때, 가는 가사와 창가마저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다는 판소리, 구전문요까지, 마는 잡가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음이 특징이다.

내용면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현실인식을 반영하여 근대의식의 도입, 매국 친일 집단에 대한 규탄,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등 다양한 내용이 등장한다. 개화기 시가는 단순히 새로운 시가 양식이 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가와 현대시가를 연결해 주는 교량적 역할과 함께 근대문학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화기 시가문학이 근대문학의 출발점이라는 견해로는 1939년 임화의 「신문학사」(조선일보)를 비롯하여, 1948년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수선사), 1956년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사) 등이 있다. 이들 문학사류에서는 개화기 문학 연구가 개화와 더불어 밀어닥친 외래 문학 양식과 사조 및 방법론에 치우친 결과, 우리의 신 문학사를 서구문학의 이식 내지는 모방사로 규정짓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최근의 논저들에서 지배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문학사가 지나치게 서구의 양식과 방법론에 집착한 나머지 외세의 침략과 망국이란 당대 현실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있고, 이 시기의 사상 중의 하나인 개화란 현상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던 경향에 대한 신중한 자성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개화기 문학연구의 문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론 내지

5) 조동일, 「개화기의 우국가사」, 『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4.

6) 김영철, 『개화기시가연구』 석론·서울대, 1975.

7) 조남현, 「사회등가사의 풍자방법」,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8) 김용직, 「개화기 시가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학 제 2집』, 한국정연, 1980.

9) 김학동, 『한국개화기시가연구』, 시문학사, 1981.

는 장르 진화론에 치우쳐 있어¹⁰⁾ 개화기 시가의 내용적 고찰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둘째, 개화기 시가의 범위를 가사·창가·신체시 등으로만 묶어 다룸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전개를 파악하지 못했다. 셋째, 개화기 문학은 전통 단절 문학이며, 따라서 서구 수용의 문학으로 파악하여¹¹⁾ 우리 전통시가 문학유산의 지속·발전적 탐색의 징후를 보지 못했다. 넷째,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질적 정리의 미비¹²⁾로 인한 부분적인 논급에 머무르고 있어 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³⁾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존 연구 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 왔다. 형식론 내지는 진화론적 탐색에 대해 시대정신의 파악 및 사상적인 연구가 있었다.¹⁴⁾ 개화기 시가의 범위를 시조·한시·민요·동요·의병창의가 등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¹⁵⁾ 전통단절론에 반발하여 그 변모과정을 전통의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¹⁶⁾ 자료의 정리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¹⁷⁾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화기 시가의 연구 성과에 반하여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는 미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개화기 시조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의 대상

-
- 10) 조연현, 「개화기문학형성고」, 『예술원논문집』 제5집, 1966.
김상선, 「개화기 노래의 형식적 고찰」, 『중대논문집』 15집, 중앙대, 1970.
- 11) 최돈은, 「한국자유시 성립과정에 관한 고찰」, 『어문논집』 제11집.
김윤식, 『한국문학사론고』, 범문사, 1973.
- 12) 조동일, 「개화기의 우국가사」, 『개화기의 우국가사』, 신구문화사, 1974.
조남현, 「사회등가사의 풍자방법」,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 13) 박을수, 『한국개화기저항시가론』, 아세아문화사, 2001, p.25.
- 14)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4.
홍일시,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연구』, 열화당, 1980.
박을수, 「개화기시조연구사설」,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 15) 조동일 앞의 논문.
김영철, 『개화기시가연구』 석론·서울, 1975.
권영민, 「개화기시조에 대한 검토」, 『학술원논문집』 제15집, 1976.
민병수, 「개화기의 우국한시」, 『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4.
박을수, 「개화기시조연구서설」,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 16) 정한모, 앞의 책, 1974.
조지훈, 「한국현대시문학사」, 『조지훈전집 7·학술론고 II』 일지사, 1973.
- 17) 신동한, 『항일민족시집』, 서문당, 1975.
임중빈, 『한말저항시집』, 정음사, 1976.

을 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화기 시가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개화기 시가라는 용어 속에는 동학가사, 의병가사, 『독립신문』에 게재되었던 애국가류,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던 사회등가사, 개화시조¹⁸⁾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나는 개화가사와 개화시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또한 현 문학 교육에서 개화기에 등장한 시가 문학으로 창가와 신체시를 교육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개화기 시가의 교육적 활용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에 교육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인식하여 창가와 신체시를 개화기 시가로 포함하여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화기 시가 문학이 형성된 개화기의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살펴본 후, 개화기 시가 문학의 변모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 한다. 끝으로, 이러한 원인을 통해 등장한 개화기 시가의 역사 장르와 장르 의식을 살펴본 후 현 문학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려한다. 끝으로 수용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문학의 교수·학습법과 관련하여 대화 중심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구체적 지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려 한다.

문학 교육에 있어 문학의 당위는 옛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미의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확인케 하여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개화기 시가문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그 전 시대의 문학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현대의 문학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문학사의 발전 경로를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며, 문학 문화 발전이라는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 형식과 내용에서 표출되는 표현 미학이 어떻게 전통 문학에서 현대적 계승이 되었는지를 개화기 시가를 통해 살핌으로써, 고유의 시가 문학의 문학적 전통이 어떻게 현대의 시가 문학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피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문학 문화 발전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개화기 시가의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서 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18)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385수의 시조가 발표되고 있는데 박을수는 이들 시조를 개화시조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가 문학의 수록 실태를 파악하고, 이중 개화기 시가가 어떻게 수록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18종 문학 교과서를 부차적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II. 시대적 상황과 근대성

1. 사회·역사적 상황

개화기의 한국은 전근대적인 봉건체제에서 서구식 근대화로의 변혁기에 처해 있었다. 1860년대와 1870년대 초기에는 구미열강이 중국과 일본을 개항시켜 동아시아에 강력한 거점을 확보하였다. 오랫동안 한정된 출입 외에 대외 접촉이 막혀 있었던 조선도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구미 자본주의 국가의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강력한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구미열강과 일본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1876년 개항을 출발점으로 이 땅에 개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쳤다. 개화의 물결은 근대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의병투쟁, 독립협회운동, 애국계몽운동 등 갖가지 양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것은 개화기 문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문화 현상이 그렇지만 특히 문학은 삶의 문제를 대상으로, 이에 관한 모든 인간행위를 형상적으로 그려낸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공간과 분리되어 이해되기 어렵다. 개화기 문학이 개화기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어느 시기보다도 당대의 사회·역사적 및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⁹⁾ 이러한 내용은 본론에서 각 장르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며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문학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을 개국시킨 서양 세력은 이전 시기까지 서구 중심 세계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조선을 발견하게 되고 개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개항의 방법과 개념은 당시의

19) 우림걸, 『한국 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도서출판 박이정, 2002, p.11.

조선으로서는 미증유의 것이었기 때문에 개항에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이 점은 일차적으로 저항감과 내부적 결속을 불러 일으켜 강경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조선이 거부한다고 개항의 대세가 중단될 수는 없었다. 조선의 저항으로 일단 좌절된 서양세력은 월등한 과학적 신무기로 조선을 압박하였다.²⁰⁾ 압박이 심해질수록 조선은 내부적으로 개항과 쇄국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논쟁은 정치적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개화는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요되는 개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개화를 주장하는 인사에 대한 분개와 성토가 일어났다. 이 모든 논의의 근거는 역사 및 문화적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이 내부적으로 정리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압박에 의해 불평 등 개항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선의 수동적 개국²¹⁾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왕과 지배집단의 권위가 무너졌으며,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이 나타났다. 혼란은 당시 삶을 살아가는 조선인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전 시기의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 붕괴가 지속적이고 결과적인 것인지 또는 일시적이고 회복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대응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 이미 전 시기의 지배 질서는 무너졌으며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난날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회하나 비난을 고조시키며 구질서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후자는, 곧 법도가 이완되어 있을 뿐 그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는 경우로, 자신이 누리던 지위에 대한 보수적 의지가 작용하거나 자신이 소외되었던 권위에 대해 장벽이 이완된 틈을 이용해 현실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작용하게 되었다.²²⁾

20) 1866(병인) 불란서 함대에 의해 강화도 함락, 수복. 1871(신미) 미국 함대에 의해 강화도 함락, 철군으로 인해 수복 - 韓國現代史 1(신구문화사), 제1장 “鎖國으로 지키다.”

21)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기와 관련되는 수호조약은 다음과 같다.

- 1876, 韓日 수호통상조약
- 1882, 韓淸 상민수륙무역장정
- 1883, 韓英 수호통상조약, 한독 수호통상조약
- 1884, 韓伊 수호통상조약, 한로 수호통상조약
- 1886, 韓佛 수호통상조약
- 1892, 韓攄 수호통상조약

이 밖의 조선의 이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조선 내의 일정한 지역을 외국인의 거주지로 허가하는 조약이 1877년 부산 일본조계조약 이후 다수 체결되었다. - 韓國現代史 9 (신국문화사), 1972, 참조.

22) 田種洙, “봉건사회의 총결로서의 동학농민전쟁”(한국근대사학회와 사상, 중원문화사, 1984, 소재) 제3절 “동학농민전쟁의 실패와 교훈”, p. 153.

그러나 당시 조선 일반 인민의 개화주의자에 대한 태도는 개화 이념에 대한 긍정 부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화파의 일정한 행동에 대한 호오의 감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갑신정변이다. 1884년 우정국 낙성식에서 개화파가 대신들을 죽이고 왕을 꺾박한 상황은 당시 사람들에게 개화파와 그 이념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아닌, 분개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인에게 있어 왕을 꺾박하고 속인 사건은 그 선악을 떠나 비난받을 일이었다. 이로 인해 원래 보수적인 성격을 가졌던 조선 사회는 전반적으로 더 보수적인 분위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 분위기는 동학교도의 붕괴로 촉발된 갑오경장(1894)에 이르러서도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더욱 1895년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사건은 조선인 전체에 개화파 및 일본에 대한 분개와 적대감을 야기하여 전체적인 보수 회귀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내부적인 격동 속에서도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급박하게 변화하였다. 열강 중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조선 진출을 꾀했다. 청일전쟁(1894년)에서의 승리로 청에 대한 우위까지 확보하고 영일 공수동맹(1902년)으로 배타적인 우선권을 확인했다. 또,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치러내고 1905년 11월에는 제2차 한일협약 곧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만행은 조선인에게 경각심과, 아울러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켰다.

결국, 조선인은 개화의 이로움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으며, 과거 유교적 이념의 설득력이 아직 남아 있는 형편에서 개화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개화에 대한 노력은 구질서와 결합된 자주정신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 표명이 민중들의 긍정을 얻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상사적 조류와 변화

개화기라 불리는 시기는 개화사상이 전면적으로 이끌어 간 시기라기보다는 개화사상의 출현기 또는 확산기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개화를 주장하는 사조가 많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유교적 왕조중심주의가 일거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개화기는 개화를 주장한 사조와 유교적 왕조중심주의가 함께 공존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의리 이념은 비관료 학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발전하였다. 이들은 진리와 현실의 결합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대응을 논의하고 준비하였으며, 다양하게 분과된 학문 태도를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미 조선 후기에 이들은 현실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화이론의 재인식을 시도하였고²³⁾ 실사구시의 이론적 정립을 이루었으며 유학의 혁신을 통해 존왕양이의 행동을 논리화할 수도 있었다.

보수적인 유교사상과 그 실천자에 대한 일반 민중의 지지는 확고하였으며 이러한 지지 위에서 이들의 논쟁과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있었다.²⁴⁾

이들이 보인 논리적 정돈이 이른바 위정척사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외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개화사상과의 대립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립을 통해 자신들의 사상적 태도를 더욱 확고히 한 이들은 그 학문적 연원에 따라 의거를 일으키거나, 자결로 의리를 명백히 하거나, 은둔하여 학문에 전념하거나 온건 개화의 길로 나서기도 하였다.

또한 개화사상이라는 일련의 사상적 모색도 그 연원은 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개화파의 출발이 실학파의 탐구에 있었고 그것이 또한 유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유학과 개화를 실학이라는 사상이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학이 학문적 탐구와 이상적 사회건설에 발상의 기반을 둔 데 비해

23)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4. “실학에 있어서의 근대민족주의의 맹아”에서는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이규경 등의 학문적 탐구를 통한 화이론 분쇄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24) 강제연,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 『한국근대사회와 사상』, 중원문화사, 1984. p. 123.

개화파는 당시 외세 등에 의해 촉발된 현실적 제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박지원, 박제가 등의 실사구시적 사고는 그들의 제자 또는 후예인 김옥균, 박영교, 박영효, 홍영식 등에 의해 개화의 실천으로 구현되었다. 이 사상적 흐름은 현실에 대응하는 논리이면서도 굳이 이론적 틀을 갖추려고 노력하였고 이는 그 대척적 개념에 있던 위정척사론에 대한 이론적 부족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²⁵⁾ 이 점은 이들도 현실 수용적인 태도를 통해 질서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도를 가졌을 뿐 전면적인 혁신과 부정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화 이념의 행동화는 갑신정변으로 나타났다. 젊은 이상주의자들의 급진적 사고와 행동을 보인 이 정변의 실패로 인해 이들은 그 사상적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는 일반 민중은 왕조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구체적인 피압박민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해 일견 모순되고 있으나, 오래 안정되어 있던 사회의 성격과, 변화는 곧 혼란과 고난을 뜻했던 역사적 사실의 결과로 체득된 삶의 양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갑신정변은 민중들에게는 단순히 혼란을 초래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졌다는 것이다. 민중이 그들의 고통을 거부하고 일으킨 항거의 경우에 그들이 내세운 것은 파견된 관리가 파견자인 왕의 의도를 구현하지 못하고 수탈행위에 탐닉하는데 대한 분노일 뿐, 왕조적 기본 질서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개화기에는 여러 사상이 공존하고 있었으나²⁷⁾, 이중 전통적 유교적인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개화라는 사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李光麟, 「개화사상연구」, 『韓國開化史研究』, 일조각, 1969, pp.31~56.

26) 왕권에 대한 존중과 이를 이용한 민중의 의사표시방법으로 관청에 안치된 왕의 상징물을 훔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잃은 관리가 처벌되는 것을 노린 것인데 훔친 백성은 이를 훼손하지 못하고 보호하거나 은닉하였다가 발각되어 처벌되었다. 이는 왕이나 왕권에 대한 외경심의 발로로 볼 수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p.288.).

27) 개화기에 나타난 사상으로는 동학사상, 기독교사상, 대동사상, 변법사상, 진화론사상, 민족주의 등이 있었다.

3. 문학의 변모 양상

개화기에 이르러 문학에 대한 인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직전까지 시가문학이 달성했던 인간 본성과 감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서정성은 시대의 격변 속에서 그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모든 문학 행위는 개인의 창의적인 서술이나 사사로운 감정의 표현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개화기의 문학은 시대 문제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는 도구로 인식되었고, 표현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문예적인 여러 기법이 모색되고 실천되었다.

이 점은 당시 조선 문학이 시기적으로 근접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상황적 유사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²⁸⁾ 특히 토론체 소설을 살펴보면 민족 내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주요 관심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관료의 부패상을 통박하면서 진정한 정치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각종 제도와 관습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문제에 주된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²⁹⁾

이렇듯 새로운 문학이 나타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더 들 수 있다.

첫째로, 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문학의 출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서유견문』은 1895년에 씌어진 최초의 국한문혼용서로 한자에 한글을 섞어 쓴 책이다. 한자만을 문자로 알고 한글은 ‘언문’이라 부르며 천시하던 시대에, 한글을 문자로 인식한 유길준을 선각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는 말과 글이 일치하는 언문일치를 주장하였다. 이봉운, 지식영,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국어연구가 활발해졌다. 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자각이 새로운 문학의 출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1883년 발행되고, 처음으로 순한글로 된 『독립신문』이 1886년 발간되었다. 『매일신문』, 『황성신문』, 『데국신문』 등 여러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었는데, 신문의 발행이 새로운 문학의

28) 芦川哲世, 『韓日 開化期 政治小説의 比較研究』, 서울 대학교 현대문학연구, 1975.

29) 문성숙, 『개화기 소설론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p.143 참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서양문물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을 새로운 문학의 형성의 등장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위에서 이미 언급한 미국 워싱턴과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후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유길준이 서양의 발달한 문명을 보고 국가와 국민의 권리, 교육제도, 서양의 과학 등 서양문명을 소개한 『서유견문』이라는 기행문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이유로는 서양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의 전파로 성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된 사실도 새로운 문학의 형성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문학은 산문이든 율문이든 교술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점은 개화기 문학이 심미성에 있어서 다른 시대의 문학에 비해 떨어진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격변 앞에서 진지해진 시대 분위기의 반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문학이 삶의 흥미로움만을 반영하고 있기에는 이 시기의 역사적 상황이 너무 급박하였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사회의 진행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학의 현실적 기능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설이나 논문보다는 시가문학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논설은 사람마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소설은 감격적인 표현양식으로서 장황한 것이 아닐 수 없으니, 기존의 시가 형식을 빌려 새로운 의욕을 노래하고자 한 것은 당연한 추세가 아닐 수 없다.”³⁰⁾라고 지적하고 있듯,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회적 상황과 이를 통해 고조된 국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가의 형식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장에서는 문학의 변화로 나타나는 개화기 문학 중에서도 시가문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나타나게 되는지 논하고자 한다.

30) 조지훈, 『한국현대시문학사』, 「조지훈전집 ⑦」, 일지사, 1973, p.243.

Ⅲ. 역사장르와 장르의식

이 장에서는 개화기 시가를 하위 장르별로 나누어 각각 어떠한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개화기 시가에 대한 역사장르적 구분을 이론장르로 체계화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개화기 시가로 인식하는 장르와 문학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개화기 시가의 영역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개화가사, 개화시조, 신체시, 창가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각 하위 장르는 내용과 형식, 향유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 장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각 장르를 비교 연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화기 시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를 찾아 이를 학습자에게 교수·학습하는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화기 시가가 보여주는 여러 특징 중 개화가사에서는 내용적 특징인 교술성에 대하여, 개화시조는 형식적 특징인 개방성에 대하여, 창가와 신체시는 향유자의 특징인 민중성과 수용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개화가사와 교술성

가사는 전통적인 문학 장르이다. 선조들의 일상사와 정서적인 면까지 다양한 내용을 간직한 가사는 우리 문학과 삶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개화가사에서 ‘자주 독립 사상’이라는 주제를 다른 문학 장르보다 시 형식을 통해 많이 표현된 것은 “논설은 사람마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소설은 감격적인 표현양식으로서 장황한 것이 아닐 수 없으니, 기존의 시가 형식을 빌려

새로운 의욕을 노래하고자 한 것은 당연한 추세가 아닐 수 없다.”³¹⁾라고 지적하고 있듯, 당시 고조된 국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가의 형식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점에서 개화가사는 문학성 보다는 교술성에 더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화기에 등장한 가사는 격변했던 민족의 시련기에 민족의 정신을 담은 대표적인 양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화기 시가를 논함에 있어 개화가사를 빼놓고 논할 수는 없다. 개화가사는 많은 작품 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개화가사는, 광범위한 매체를 감안하여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로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두 신문을 선정한 까닭은 『독립신문』이 초기의 개화가사를, 『대한매일신보』가 쇠퇴기에 접어든 가사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개화가사의 사적 흐름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에 수록된 가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³²⁾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는 갑오경장 이후 대한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외래 문화의 유입과 적극적인 현실개혁 의지를 드높이기 위해 등장한 장르이다. 개화가사의 형식으로는 전대의 전통적인 율조(4·4조의 연속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내용은 자주독립·민권·교육 등 이 시기의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근대적 의식을 그 주제로 삼았다.

처음 발표된 가사는 1896년³³⁾ 4월 11일 서재필이 주재한 「독립신문」 제3호 2면에 실린 “서울 순청골 최돈성의 글”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31) 조지훈, 『한국현대시문학사』, 「조지훈전집 ⑦」, 일지사, 1973, p.243.

32) 「독립신문」에 실린 가사는 김근수(편) 『한국개화기시가집』에는 24편이 실려있으며, 김학동 『한국개화기시가연구』, 시문학사, (1981)에는 총 27편, 장성진 교수의 논문에는 총 29편이 실려 있다.

33) 김용직은 개화가사가 우리 주변에 나타난 것은 정확히 1896년이라고 한다.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p.58.)

대조선국건양원년	즈쥬독립깃버흐세
님군씨충성흐고	정부를 보호흐세
나라도올싱각으로	시종여일동심흐세
집을각기흥흐라면	나라몬져보전흐세
나라위히죽는죽엄	영광이제원한업네

(후략)

이 작품은 작자만 밝혀져 있을 뿐 제목이 없다. 형식은 연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형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내용은 자주독립을 경축하고 盡忠保國하는 애국사상 및 교육을 통한 문명개화를 이룩하자라는 내용이다.

같은 신문에서 이 작품 이후로 ‘애국가, 독립문가, 애국하는 노래’ 등의 제목이 붙으면서 2호 또는 3호 간격으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신문』의 시가를 애국가류³⁴⁾로 명명하기도 했다. 『독립신문』은 창간된 그 해에 폐간되는 바람에 그해 말까지 32수의 가사가 발표되었다.

이제 『독립신문』에 수록된 개화가사를 형식과 내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의 형식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는 조선조 가사와 시조를 통해 이어 내려온 한국시가의 전통적 율조인 4·4조로 이루어졌다. 내용면에 있어서의 가사는 개화기의 새로운 모습을 다루었으나, 형식면에서는 전통적인 율조를 그대로 답습했다. 그런데 개화가사가 조선조 가사 형식을 계승한 이유는 4·4조가 한국 고유의 율격이고, 또 이 형식이 가장 민중성을 띤 자유로운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민중성을 띠었다는 것은 그 만큼 민중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조선조 가사 형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독립신문』의 개화가사는 기본 음수율은 4·4조였지만, 시 전체의 형태에 있어서는 가

34)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작품이 많은 점과 애국적인 내용의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연유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해 <독립신문>의 가사를 愛國歌類 詩歌로,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가사 憂國歌類 詩歌로 불렀다. (김영상, 「개화시가고」, 『사람어문연구 제14집』, p.141참조.)

사보다 근대화하여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 실린 32편 중 몇 편을 제외하고는 연이 나누어져 있고, 각 연은 2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그 길이가 짧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분연의 단위인 2행에 ‘합가’가 있는 것과, 4행에 후렴을 붙인 것을 새로운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독립신문』에 실린 가사는 前代 가사의 율조를 계승하고 있지만 1행 4음보격 4·4조 1행(1구)의 2行聯 대구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개화가사의 구성은 시조보다는 형식이 더 엄격하고, 분연되어 있어 줄글로 된 전통가사보다는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의 내용

『독립신문』에 실린 개화가사의 주제는 갑오경장 이후 개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주독립 사상과 자아각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밀려오는 외세에 대항하여 주체를 수호하려는 목적과, 서구문물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독립신문』 소재 애국가류 개화가사에 나타난 자주독립 사상(애국사상)은 민권의식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개화는 선진 문명국인 서양이 규범이었고, 애국은 忠君愛國으로 전통적인 애국관이며, 독립은 중국의 종주권으로부터의 해방과 완전한 自主獨立을 의미한다.”³⁵⁾라고 개화가사에 반영된 개화의 의미를 밝히는 논자도 있다.

다음 인용 자료는 『독립신문』에 실린 작품 중에서 자주독립 사상과 개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개화가사의 한 행씩을 예로 든 것이다.

- | | |
|---------------------|----------------------------------|
| 자주독립 빛나도다 | -<허일 作 無題>에서- |
| 진충보국 데일이니 | -<최돈성 作 無題>에서- |
| 충군익민 호여보세 | -<최영구 作 愛國독립가>에서- |
| 문명기화 도홀시고 | -<리영언 作 愛國가>에서- |
| 교육호야 기화되고 | -<김철영 作 愛國가>에서- |
| 스릉공상 힘을써서 부국강병 되야보세 | -<최영구 作 愛國독립가>에서- ³⁶⁾ |

35)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85, p.141.

위 예와 같이 애국가류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자주독립, 진충보국, 문명기화, 외국, 동심, 스통공상(부국강병) 등의 용어이다. 이들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자주독립과 문명개화로 온 국민이 동심의 되어, 교육에 힘쓰고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고 세계만방에 국위를 떨쳐야 한다는 것이다. 개화기에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혼란한 시대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대한매일신보』 소재 개화가사³⁷⁾

『대한매일신보』의 개화가사는 을사조약을 시발로, 정미7조약, 한일합방까지 일제의 식민지화라는 극한적인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에 외세 배격의 범주는 『독립신문』의 가사와는 달리 주로 일본이 대상이 되었다. 또한 개화정책을 담당했던 집권층이 일제의 침략정책을 도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매국집단으로 변하자, 일본과 매국집단을 극렬하게 비난하는 憂國의 내용을 띠게 되었다. 이 때문에 초기 개화가사 연구에서 이 시기 가사를 憂國歌辭라 명명하기도 했다.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개화가사를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한매일신보』 소재 개화가사의 형식³⁸⁾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개화가사는 대략 700여편³⁹⁾인데, 그 형태와 작품 수에 따라 분류하면, 전통가사(39편) · 가창가사(37편) · 신가사(624편)로 대별된다.⁴⁰⁾

36) 김영상, 위의 논문 p.147.

37)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우국가류 개화가사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 구자균은 『고려대문리논집』 제 4집, (고대출판사, 1959.)에서 “한말우국경시가”란 제목하에 150여 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했고, 김학동은 『한국개화기시가연구』에서 150여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했고, 김학동은 『한국개화기시가연구』에서 600여수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개화가사를 채록 및 연보를 작성했다.

38) <대한매일신보>는 한글판과 국한문판으로 구분되어 발간되었는데, 개화가사도 한글판에서는 <시소평론>란에 제목없이 1행 4음보(4·4·4·4)의 형식으로, 국한문본에서는 ‘사회등’이라는 고정란에 1행 8음보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 자료로 이용하는 김근수(편)의 『한국개화기시가집』에 있는 작품을 근거로 언급하겠다. 그러나 이 시가집에도 한글판과 국한문본 작품 모두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사의 형식을 구분 짓는데 한계가 있다.

39) 가사와 유사한 민요형의 작품들이 섞여 있어 논지에 따라 작품 수는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개화가사를 형식적인 특징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통가사의 형태상 특징으로, 형식적 단락 구분 표시 없이 전대의 가사⁴¹⁾처럼 귀글체(句文)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 前代의 가사처럼 서사, 본사, 결사의 구분과 그 결구 방식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시가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시 세부적으로 서사에서 는 발의사·계의사·수렴사로 나누어진다.

<발의사> 불상하고 이달을스 이천만 동포들아
 혼 편 귀를 기우려셔 이너 말을 드러보오

<계의사> 나라이 이디경에 거의거의 망흐엿고
 인민은 이디경에 거의거의 다 죽겠네
 (중략)

<수렴사> 치평이 오릿되면 화란이 이러나믄
 고금에 등축이오 국가에 상경이라

<시스평론(政界測量국한문본제목) : (1906.1.11~13)>의 서사부분

위의 작품을 살펴보면, 발의사에서는 작가가 전면에서 작품을 향수할 대상을 불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는 대체로 ‘어와세상 사람들아’와 같은 돈호법의 호소형을 사용했다. 다음 계의사에서는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의도나 필연성을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내보이고 있다. 수렴사에서는 서사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작품의 전체의 내용에 대한 전망(예고)으로 끝을 맺는다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본사는 논설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넷째, 결사에서는 권유와 다짐·각오·결의 등으로 되어 있으며, 통일된 결구 방식을 보인다.

40) 장성진, 「개화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41) 조선조의 전통가사 :

- ① 3·4나 4·4조의 연속체로 분절 구분이 없다. (비연시)
- ② 4음보 1행(2구)이 병렬되어 연속되므로 귀글체(句文)라고도 한다.
- ③ 조선조의 가사에서도 가창가사의 경우 1행 4음보격이 1행 2음보격(3·4나 4·4조)으로 드러난 예가 많다. -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pp.119~130.

三千里의 三千萬人 學文修業 힘써 보세
學文外에 銀金財貨 쓸디업는 물건이니
모든 同抱 모든 同抱 學文修業 힘쓰시오

<망본국태평가 : 경향신문(1908.1.3)의 결사부분>

위의 작품을 살펴볼 때, ‘힘쓰시오’라는 결사의 마지막 구절은 확고한 권유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화가사의 교술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가창가사의 형태상 특징을 가진 개화가사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독립신문에 실린 가사와 유사한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 그 형태는 단락의 결구 방식이 4·4조 2행 1연의 分聯體를 이루며, 이를 상하 양단에 나누어 기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대의 서사·본사·결사의 구조가 구분하기 모호할 정도로 약화되어 나타나며, 이는 작품의 단행화가 극도로 진행된 양식을 보여주며, 후렴, 반복구, 합가 등이 형식상 연 구분을 하고 있다

끝으로, 신가사의 특징으로 시행 구분은 없지만 형식적 단락 구분 표시(연 구분의 분연체, 연 구분의 기호로는 △,○이나 一,二등의 숫자로 표시함)를 하는 형식을 찾을 수 있다.

다음 형식적 특징으로 제목과 서사의 조응, 서사의 결구와 반복구의 조응, 제목과 반복구의 조응을 들 수 있다. 신가사의 각 연에 반복구 형태로 설정된 후렴구는 그 연에서 서술한 주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 時局安危 不關호고 無所營爲 一平生에
黃金갓튼 이歲月을 虛送호기 至難호다

△ 青年事爲 許多컨만 花柳場에 放浪호야
如花如月 二八妓는 天上仙女 맛는드시
精神업시 耽樂호야 父母妻子 不願호니
이것도 無事客

△ 世上事를 下直호고 林泉에다 草堂지어

將翱將翔 逍遙홀제 一局刑便 全昧호고
 自爲身謨 호는計策 別有天地 非人間이라
 이것도 無事客

<중일월 1908.2.22>시가집42)

인용한 가사는 총 11연으로, 1연은 4행, 나머지 연은 7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의 표시로 ‘△’기호를 사용하며, 2연부터 10연까지의 결구가 ‘이것도 無事客’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짝호곡조 격절호다 백석로의 회귀호야
 야학교의 하공호제 촌은시경 자자호야
 조국사상 주입호면 팔목상대 호는늘의
 자유활동 호여보세

<聞笛興感 1908.6.15>시가집43)

인용한 가사는 총 10연으로 1연만 5행, 나머지 연은 모두 7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분으로 ‘○’기호를 사용했다.

『대한매일신보』 소재 개화가사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은 반복구나 후렴구 사용과 분연법을 들 수 있다. 분연을 위한 반복구나 후렴구의 설정에 대해, 조동일은 “사회등 가사는 긴박한 감정이 요구되는 시대의 산물이며, 강력한 사회비판의 소리이므로 분연과 반복에 의한 힘찬 리듬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⁴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개화가사에서 분연과 반복구의 사용은 ‘힘찬 리듬’의 필요성과 가사의 내용 전달과정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인 것 같다.⁴⁵⁾ 형식적 특징은 개화가사가 문학성보다는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교술성이 강함을 보여 준다.

42) p.333중 1·5·9연

43) p.389 10연

44) 조동일, “개화구국기의 애국시가”, (임형택·최원식(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8), pp.159~160.

45) 김영삼, 「개화가사고」, 『사람어문연구』, 사람어문학회, 2001, p.154.

(2) 『대한매일신보』에 소재 개화가사의 내용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가 주로 독자의 기고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사회등에 실린 가사는 신문사측의 몇몇 논설진 곧, 신채호, 박은식, 양기탁, 장지연(1908년까지 활동 : 황성신문으로 옮김)등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作者名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들 가사는 대체로 개인의 서정성을 위주로 한 미적 측면보다는 사회와 정치현실을 비판한 내용을 가사 형식에 담았기 때문에 표현이 직설적이고 웅변적이며 교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개화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식민정책이나 야만적 풍습 및 그 추종세력(일진회 등)에 대항하는 강렬한 저항정신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아바님아	여보시오	우리집이	先代부터
柔弱으로	有名하야	對抗力이	업난 것을
一夕月深	冤痛기로	武術研究	하짓더니
越便家の	亡亂이놈	百方沮害	하라흔즉
엇지하면	도흐릿가		

<書窓漫筆 1909.1.17.>⁴⁶⁾

위의 작품은 총 9연으로 구성된 가사로, 일제의 침략적 만행이 여러 방면으로 미치고 있음을 고발한 것이다. 越便家の 난장이 놈, 짝장이 놈, 망난이놈 등은 간계를 부리는 일본인을 가리키는 말로 한문 연구, 상업, 무술 연구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우리의 자주적인 발전을 百方으로 그들이沮害하고 있다는 것이다.

愚直하다	一進會야	가련하다	一進會야
百萬名の	團體라고	네가恒常	誇張하니
더러타시	大團體가	他人奴隸	되지말고
祖國史에	一身하야	強性竭力	하고보면
於公於私	利害가	오늘날의	賣國的과
何澤焉고	何澤焉고		

46) 김근수(역), 『개화기시가집』, p.256 4연.

<一進會야 1909.2.17>⁴⁷⁾

인용한 가사는 총 7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연은 11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인용한 부분은 매국 친일단체 일진회를 준열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日人行爲 불작시면 毆打父母 ㅎ난것은
茶飯으로 認定ㅎ고 豚子息과 奸淫혹은
別珍味로 아난고나 豚犬의게 比ㅎ여도
더豚犬이 분노ㅎ야 不遠千里 냇셀지니
此等-行 ㅎ난자도 非一非再 잇섯도다

(중략)

<東窓漫錄 1909.3.9>⁴⁸⁾

인용한 가사는 총 7연으로 각 연은 10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명국임을 자처하는 일본인의 야만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우리 민족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개화가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개화가사의 주제의식은 크게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의 적인 일본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비판하는 저항하는 내용과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개화가사는 대체적으로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나, 『대한매일신보』 소재 개화가사는 비판 대상이 다르다는 점과 형식면에서 가창과 시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민중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리려는 형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자주독립과 우국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화가사가 교술성이 강조되는 시가 문학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7) 시가집, p.239 중 7연.

48) 시가집, p.266 중 4,5,7연 .

2. 개화시조⁴⁹⁾와 개방성

1) 개화시조의 형식과 개방성

시조는 역사적인 추이에 맞춰 형식이 변화면서 발전해 왔다. 시조형태의 최초의 변혁은 조선조 후기 실학사상의 대두로 인한 산문화의 추세에 맞춰 등장한 사설시조형에서 비롯된다.

이 사설시조형은 시조 고유의 삼장체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민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적 변용이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가 이념의 질곡에 빠져 공리공론으로 전락하자 그에 대처하여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도입된 것이 실학사상이었다. 문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이때까지의 율문문학의 형식을 바꾸어 산문문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시조도 새로운 변용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사설시조형이었다. 이 시형은 한 때 각광을 받았으나 개화기에서 그 전통이 계승되지는 못한다.

조선조 후기의 전통시조는 평시조의 균제의 미와 사설시조의 파격의 미라는 서로 다른 미의식의 공존 속에서 개화기를 맞았다.

개화기에 이르러 시조는 문학의 본령인 서정성보다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는 급박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야만 했다. 시대정신의 반영에 알맞은 형태적인 변개는 어쩔 수 없는 자체 정비였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난에 직면한 이 시기에 시조는 본래의 서정적 기능보다는 현실에 직접 참여하여 민족적인 울분을 담아 철저한 저항문학의 일익을 담당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형태에 대한 변개까지도 과감하게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개화시조에서 보이는 형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9)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385수의 시조가 발표되고 있는데 박을수는 이들 시조를 개화시조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단형시조형 채택

개화시조에서는 조선조의 사설시조형의 전통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형시조형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개화시조 386수 중에서 사설시조는 단 23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⁵⁰⁾

그러면 개화시조가 굳이 단형시조형을 채택한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에서는 계층적 지위에 대한 평가 개념이 엄격하였으나, 이후 사회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개화기에 오면서 서구적 평등 개념이 확대되었으며, 붕괴된 계층의식으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미의식의 대립이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사설시조형은 개화기의 시대상에 적용될 수 없는데다가, 찬송가의 유입과 창가 운동이 활발해져 민중들의 음악적 감각이 전통의 창에서 서구의 찬송가와 같은 악보를 가진 것으로 달라지면서 시조창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조가 지니고 있었던 음악성은 창가로 넘어가고, 시조는 ‘불려지는 시조’에서 ‘읽혀지는 시조’로의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창곡의 음악적 형식에 의해 지탱되었던 사설시조형은 삼장 분장의 형식적 완결성을 잃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으나, 평시조형은 율격의 고정성으로 인해 시 형태로서의 완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당시의 격변하는 시대상을 표현하고 이러한 시대상에 민중들에게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아무래도 반복적인 리듬이 효과적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설시조형보다는 단형시조형이 단연 유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개화기의 시가가 단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장 종구의 생략

『대한매일신보』 소재의 시조를 보면 종결어미를 생략하는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생략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종결어미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종장의 제2·3구가 중첩

50) 김영철, 『한국개화기시가의 장르 연구』, 학문사, 1990, pp.263~295 부록 참고.

되어 있어서, 율격상으로는 종장이 4구로 완결된 형태가 있다는 점이다.

[가] 지금의, 위국충심을, 진각세계.

(종장)

[나] 아마도, 附肝附肺 奸臣輩는 여호 後身

(종장)

[가]는 종장의 제4구, 즉 종결어미가 생략된 경우이고, [나]는 종장의 제2구에 제3구가 중첩되어 제2구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음수율로는 3·4 또는 4·4조의 율격을 갖추고 있어서, 전통시조의 형식과 같이 종장은 4구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시조 종장의 종구를 생략하는 예는 비단 이 시기의 작품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며, 전통시조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다. 예를 들면, 시조집 『남훈태평가』 소재 모든 작품들은 종장종구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생략은 시조가 원래 창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창을 한 후에 기록된 것이어서 가창을 위한 율조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화시조는 창곡과는 완전히 분리된 문학 형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시조의 생략 의도와는 다른 의도를 지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흐노라’·‘~러라’체의 어미가 주는 유장감과 완만성은 단호하고 힘찬 결의의 표현으로는 알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민중들의 급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완만하고 유장한 표현으로는 일제에 대한 우리의 굳은 결의와,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에는 적당치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종장 종구를 생략함으로써 긴박감·단호함·힘찬 결의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개화시조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로써 일제에 대한 저항을 그 내용으로 담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고유 시형의 변개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타령조 가미형의 개발

개화시조에서 종장종구의 생략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전통시조의 흐름에서 형식이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변개라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변개가 개화시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즉 전통시조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익숙하고, 친근감을 주는 타령조를 가미한 형식이 그것이다.

세 만흔 송사리 호응 병漁 준치 흥
一唇을 갈회여 회쳐 먹을까 아
어리화 도타 호응 知味者 痘쿠나 흥.

(「不時着」)

모진 일勢가 호응 하 괴상하여 흥
거거익심에 다 죽겠구나 아
익고덕고 호응 정신을 차리고 흥.

(「정신을」)

「대한매일신보」 제1018호(1909.2.9일자)부터 제1320호(1910.2.23일자)중에 게재된 31수의 작품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초장 제1구와 2구 끝에 ‘호응’, ‘흥’ 하는 감탄사를 넣어 흥취를 돋우고, 중장 제2구 끝에 ‘아’라는 감탄을 넣은 후, 종장 제1·2구 끝에서 다시 초장의 ‘호응’, ‘흥’을 반복함으로써 난잡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친근감 있게 독자들에게 접근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전통시조에서는 물론 신시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시형으로 시조문학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한 형태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형태의 시조는 철저하게 저항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로 보면 개화시조가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현실 참여를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⁵¹⁾

51) 박을동, 『한국개화기저항시가론』, 아세아문화사, 2001, p.211.

2) 개화시조의 내용

개화시조 386수의 主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개화가사에 못지않게 민족 시가로서의 바른 모습을 갖추고 예술성을 살리면서 현실에 참여했던 사실⁵²⁾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화시조의 주제는 망국민의 통한 · 애국충정과 자주독립에의 기원 (215수), 일제에 대한 저항과 친일매국집단에 대한 규탄(108수), 문명개화에의 열망과 내적 폐습 · 비리에 대한 자성(49수), 자연에 대한 예찬(13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의 이러한 양상은 개화가사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화시조는 개화가사와 함께 개화기 시가에서 저항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화시조의 저항정신은 국가와 민족이 존망의 위기라는 극한 상황에서, 국권의 수호와 민족의 자존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입장에서, 민족 공동의 적인 일제에 대한 저항이란 점에서 개화시조의 그것은 외세라는 뚜렷한 대상에 대한 전 민족적인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항정신은 전문적 시인이 아닌, 분노한 민중들에 의하여 나타났는데, 이러한 작자층에 의하여 개화시조에서는 진솔하고 박진감 있게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이제 각각의 주제를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망국민의 통한 · 애국충정과 자주독립에의 기원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은 당시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과제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망국한과 국가에 대한 충정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망국민의 슬픔과 애국충정이었다. 이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胸中에 불이나서 五臟이 다 트간다

黃惠庵을 쓸 藥을 무러보니

憂國으로 난 불이니 復國하면

(遣花丹)

52)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4 참조.

[나] 陽春에 도라오니 종다리가 넓히 쓴다
지일지일 非想天은 國家形便 알외는 듯
네 비록 미물일만정 天意 응당.

(訴千禽)

[가]는 망국의 통한 때문에 오장이 다 타가지만 무슨 약으로 고치겠느냐며, 이 병을 고치는 길은 오직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비록 미물인 종달새마저도 나라 형편이 어려움을 알리는 듯한데, 어찌하여 우리 국민들은 합심하여 나라를 찾을 생각은 없느냐며 통분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살펴볼 작품은 국토 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단결과 결기를 호소하는 작품들이다.

[가] 三千里 도라보니 天府金湯 이 아닌가
便便沃土 우리 江山 어이차고 늪 줄손가
출아리 二天萬衆 다 죽어도 이 강토를

(自強力)

[나] 一身이 當흔 관계 제 名其 알것마는
全國生靈 큰 關係는 어이 쏠혀 모르논고
同抱야 同抱]라 흐는 뜻을 김히 生覺.

(동포야)

[가]는 천부의 금성탕지인 우리 강토를 어이하여 왜적에게 빼앗겼는지를 물으며, 나라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이천만 국민이 다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 가자며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나]는 자기와 관계된 일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국민된 도리는 모르는 국민을 한탄하며, 국가가 멸망한 후에는 개인도 없고, 국가가 위태로울 때 합심하여 나라를 찾는 일에 매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일제에 대한 저항과 친일매국 집단에 대한 규탄

국권회복을 위한 열망은 곧, 침략자인 일제에 대한 항거와 저들에게 부여하는

친일매국 집단에 대한 규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왜
적의 침략에 다 함께 항거하자는 내용이다.

[가] 不如歸 不如歸라 杜鵑聲을 못 듯나나
더 원수의 원승이는 連續不絶 건너온다
암커나 掃除法을 急行하야 그 길 막어.

(掃除法)

[나] 찌사찌사시 죽을망정 의 아니면 굴치 마쇼
斧鉞 堂前 헛더리도 너 의리를 이즐손가
壹時에 無道흔 더 위협을 겁낼 거시.

(「찌사찌사시」)

[가]는 연락부절로 건너오는 원수이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소제법을 배워, 저들
을 몰아내자며 국민적인 쫓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나]는 세상사는
의리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비록 당장에 죽을지라도 의 아니면 굴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일제의 무도한 일시적인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저들의 침략에 온 국
민이 분연히 일어서서 막아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살펴볼 작품은 망국에 앞장선 매국집단과 일제에 부역하는 무리들에 대
한 규탄의 목소리도 하늘같이 높다는 것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다.

날 더워 오니 호응 회 뱀식난다 흥
씩어진 一進會 佛手山 먹여라 아.
이러화 도타 호응 良民이 되여라 흥.

(解散藥)

[가]는 친일 행각에 앞장섰던 ‘일진회’를 야유하며, 그 회원들에게 량민이 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문명개화에의 열망과 내적 폐습·비리에 대한 자성

개화시조의 작자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근본적인 원인은 일찍이 개화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는 완고한 보수파와 우매한 민중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문명개화에 대한 열망을 작품에 담았다.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이고, 무주체적인 외세에 의한 개화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폐습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자성을 통한, 주체적 개화를 염원하고 있다는 점은 개화가사에 표현된 강한 의지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개화사상의 고취와 교육구국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서구의 신문명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문명유신을 이룩하고, 힘써 국가를 부흥시키자는 내용이다.

[가] 新舞臺 봄바름은 丈夫 舞袖 휘날니고
太平洋 봄물결은 男兒 懷抱 니르킨다
씨여라 新大韓의 少年들아 봄조름을.

(「破春眠」)

[나] 太平洋 너른 물에 順風맞나 듯출 달고
둥둥 써서 오는 비야 向虹는 곳 어디리뇨
못노니 文明을 실엇거든 韓半島로.

(「韓半島로」)

[가]는 신대한의 젊은이들에게 봉건·보수의 잠에서 깨어나, 서구의 신문명을 받아들이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나]는 신문명을 실은 배거든 한반도로 오라며 개화에 대한 높은 갈망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화시조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과 침략 세력에 대한 규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하여 종장의 마지막 구의 생략, 타령조를 가미한 파격적인 양식으로 변모를 볼 수 있었다. 시조의 이러한 변모는 당 시대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인 개방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창가와 민중성

개화가사의 경우 새로운 시대사조를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긴 하나 형태상으로는 4·4조 연속의 전통 가사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창가의 경우는 그 차이가 좀 더 현격하다. 음수율도 4·4, 3·4, 7·5, 8·6, 6·5 등 다양하며 합가 형식이나 후렴구가 붙어 있는 작품들도 많다. 말하자면 개화가사가 주로 노랫말 위주라면 창가는 가창을 전제로 지어졌다는 점이 우선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창가의 출현에 대한 선학들의 견해는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전통 노래장르에서 연원되었다는 재래 기원설과 번역 창송가나 일본의 창가로부터 연원되었다는 외래 기원설 등이 그것들이다.

「海에게서 少年에게」 이전 『대한학회월보』에 발표된 최남선의 「모르네 나는」의 시행이 5·5·5조의 음수율로 분연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하여 「백성의 노래」는 5·5조의 4행연으로 분연되고 있다. 이 5의 음수는 2·3내지 3·2가 아닐 경우, 5의 음수율로 된 것도 있지만 애국가 유형과 개화가사 유형의 3·4내지 4·3의 음수율이 전통시가에서 온 것이라면, 5의 음수는 의도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함은 물론, 전통적 시가 형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가의 발생은 어느 하나의 기원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 노래의 바탕에 새로운 노래 형식의 수용되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최남선은 그 초기부터 이렇게 음수율을 여러 각도에서 실험하고 있다. 그의 실험은 시가형태의 통시적 차원에서 전환점을 이룬 것이다. 창가는 시간적으로 「海에게서 소년에게」와 거의 함께 출발하지만, 그 악보가 첨부된 것은 좀 뒤의 일이다. 창가는 7·5조, 8·5조, 6·5조를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소년』과 『청춘』지에 발표되고 있다.

7·5조의 창가

3·4·5조 내지 4·3·5조, 아니면 7·5조로 이루어져 있다. 「경부털도노래」를 위시하여 「소년대환」·「태백산과 우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8·5조의 창가

4·4·5조 또는 8·5의 음수율은 7·5조의 창가와 함께 출발한다. 이것은 8내지 4·4조로 배열했거나, 아니면 5의 음수를 합쳐 13조 1행으로 하기도 했다. 「산유화」·「가을 뜻」·「대한 소년행」 등이 여기에 속한다.

6·5조의 창가

6·5조의 음수율에서 6은 3·3 또는 4·2의 음수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유형의 작품은 극히 희소한데 「우리의 운동장」·「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 「경부털도노래」를 위시한 초기 창가의 주제를 살펴보면 근대문명의 찬양과 망국한, 청소년의 의기 및 설화와 전설을 소재로 한 권선징악과 같은 것들을 수가 있다. 「세계일주가」·「어린이 꿈」·「흥부 놀부」·「자라영감」 등에서 보인 주제 의식이 이에 해당된다. 초기의 시가들이 추상적인 개화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보다 구체적인 인간 생활에 접근하여 문학성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 창가가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창가는 개화기시가 장르⁵³⁾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고 학교 교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대중에 널리 보급되어 민중적 정서를 환기하는 데 공헌했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가창의 형식을 창가는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을 갖고 있다. 창가의 효시로 알려진 육당의 「경부털도가」보다 12년이나 앞서 그와 비슷한 노래가 배재학당의 학생들에 의해 불린 바 있다. 윤치호가 노랫말을 짓고 배재학당 음악교사인 병커가 스코틀랜드 민요 로렐라이곡을 붙여 만든 노래가 바로 1896년 12월 21일 정초식에서 불린 8·6조의 「애국가」였다. 그러나 그 앞 시기인 1880년 이미 배재학

53) 오세영은 창가를 시 양식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노랫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악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오세영, 「개화기 시의 재인식」, 『개화기 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1987.)

당 · 이화학당을 비롯한 수십 개의 근대식 학교들에서 학교 창가 형식의 교가들이 제정되어 왕성하게 불리기도 했다. 당시 근대식 학교들은 대부분 개신교 계통이었으므로 예배에 번역 찬송가가 사용된 것이나 정식의 교가가 제정되기 이전에 번역 찬송가가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 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애국가」는 전하기 시형식의 단서이자 윤치호를 창가 창시자로 볼 만한 증거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⁵⁴⁾ 이 작품은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세울 때, 배제학당 학도들이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서 「익국가」로 부르기도 했다.

성조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슈려 동반드는 우리 본국일세
 (후렴)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전하세

- 「익국가」 제1절 -

위 작품의 후렴구는 1936년 안익태가 작곡한⁵⁵⁾ 「익국가」의 후렴구에 이어진다. 1896년의 이 「익국가」 이후 10여 편의 애국가가 만들어져 불려졌고, 찬송가 곡조에 독립과 개화의 의지를 담은 수많은 창가가 만들어져 불려졌다.

내용면에서 창가는 독립과 개화라는 두 가지 뚜렷한 주제는 개화가사와 다를 바 없지만, 창가는 기독교 전래와 함께 수용된 서구의 악곡에 맞추어 제작된 노래의 가사라는 점에서 개화가사와는 차이가 있다. 즉, 창가 대부분이 가창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고, 노래로 부르기 위해 분절 · 후렴구 · 합창 · 부곡 등의 형식을 가졌다. 정형률의 노랫말을 가졌으며, 4 · 4조와 7 · 5조를 기본으로 8 · 5조, 6 · 5조 등 다양한 율격 속에서 정형률을 지켰다.

주요 발표 지면은 개화가사와 마찬가지로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보」, 「대한매일신보」, 「경향신문」 등이었다. 위의 인용한 2편의 작품 외에도 「권학가」, 「단체보국가」, 「학도가」, 「개교가」, 「개국기원절충경축가」, 「구락부운동가」 등 작품에서 알 수 있듯 창가는 작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

54) 송민호, 『한국문학사대계 10 언어 · 문화사』, 고려대 민족 문화연구소, 1979, p.931.

55) 작사는 윤치호 · 안창호 · 민영환 등이 했다는 설이 있다.

다. 다시 말해, 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나 독창적인 상상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국민에게 주제를 여실히 잘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주제는 개화가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개화’보다는 ‘자주’에 좀더 주안점을 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창가의 발전된 형식은 1908년에 가서 등장한다. 최남선이 그 해에 288행에 이르는 장편 기행시인 「경부철도가」를 발표하고, 1914년에 528행에 달하는 「세계일조가」를 발표한다. 만만찮은 길이가 말해주듯이, 이 시대에 이르러 전문적인 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창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경부철도가」는 앞부분에 곡이 붙어 「경부철도노래」로 재창작된다.

우렁타게 토하난 괴덕소리에
남대문을 등디고 썬나나가서
썰리부난 바람의 형세갓흐니
날개 가딘 새라도 못짜르겠네
늘근이와 똥은이 석겨 안젓고
우리네와 외국인 갓티 닳스나
내외틴소 다 갓티 익히 디내니
도고마한 짠 세상 덜노 일윗네

- 「경부철도노래」부분 -

「경부철도가」의 주제는 한마디로 근대 문명예찬이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로 놓여진 경부선 철도를 한껏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일본의 힘을 빌려 근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최남선은 타의 혹은 외세에 의한 민족계몽을 주장하는 큰 실수를 범했고 우리는 이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우리 민족의 자각이나 민중 주체의 개혁 의지, 그리고 자유와 자존 의식을 시에 담고자 하는 시정신이 많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창가 중에는 한양의 옛 모습에 견주어 현재의 모습이 한결 좋아졌다고 자랑한 「한양가」와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되라고 소년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대한」 같은 것이 있기는 했지만, 주제는 거의 대부분

근대화와 문명예찬이었다. 일제 침략에 대한 항의의 뜻이 농후했던 개화가사에 비해 최남선이 주도한 1908년 이후의 창가는 내용면에서 크게 자주성의 주제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보면 창가는 내용적인 면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개화와 신문명에 대한 갈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노래를 붙이는 형식을 취고 있다. 이점은 창가가 민중성이라는 성격에 의해 민중들에게 널리 불려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체시와 수용성

신체시가 첫 선을 보인 것은 『소년』지 창간호(1908년 11월)를 통해서였다. 최남선은 자신이 발행한 잡지인 『소년』지 첫머리에 「해에게서 少年에게」를 발표하였다. 물론 이 작품보다 조금 먼저 창작되거나 발표된 작품을 보기에 따라서 최초의 신체시라 여길 수도 있다. 즉 1907년에 지었다고 작자 스스로 밝히고 있는 「舊作三篇」(『소년』1909년 4월호에 발표됨)이나 1908년 2월~4월 사이에 大夢崔란 이름으로 『대한학회월보』에 발표된 「모르네 나는」외 5편의 시들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해에게서 소년에게」보다 선행된 신체시로 받아들여기도 한다. 그러나 「구작삼편」은 발표가 지체된 특별한 상황적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표일 기준을 폐기하여 이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모르네 나는」외 5편의 시들도 그 형태가 비록 개화가사나 창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6·5조(「생각한대로」), 7·5조(「그의 손」), 5·5조(「백성의 소래」)등 대체로 명백한 정형률에 의존하며, 주제에 있어서도 개화된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화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신체시의 효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모르네 나는」을 살펴보면 정형률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밥만 먹으면 배가 부름을 모르네 나는
물만 마시면 목이 육음을 모르네 나는
해만 변하면 세상인들을 모르네 나는
돈만 만호면 근심 업난들 모르네 나는
(중략)⁵⁶⁾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신체시의 효시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 교육에서 이 작품을 신체시의 효시로 여기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海에게서 少年에게」를 통하여 신체시가 우리의 전통시가 양식에서 서구의 시가 양식을 수용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현재 개화기 시가 중 문학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어 개화기 시가의 문학지도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자료로 사용하려 한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소년의 무한한 힘과 진취적 기상을 바다의 거센 파도에 비유하여 활달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태산같이 높은 뒀’로 표상되는 어떠한 물리적 힘이나, 진시황이나 나폴레옹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어떠한 권세도 소년의 힘과 기상 앞에서는 무력한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역사를 혁신할 주역으로서의 소년에 대한 기대와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의 새로움은 소년이라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새 시대가 희망차게 열릴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형식과 표현에 있어서도 전 시가 양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각 연의 허두와 끝자리에 의성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의성어는 단순한 음상징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시대를 의식한 제작자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남선은 바다의 진취적 기상을 바로 의성어로 표현한 것이다. 또 이 시에는 개항 이후 우리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구어체 종렬어미인 ‘-다’가 한 행에 세 개나 쓰기도 한다. 이는 작품이 지니는 의미의 매듭을 선명하게 전달하여 그 호흡을 경쾌하게 만든다.

56) 「모르네 나는」의 일부, 『대한학회월보』, 제1권 1호, 1908. 2.

또한 구어와 문어를 일치하려는 실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 운율을 박력 있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형식도 그 이전의 시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우선 이 시는 얼핏 봐서도 매우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상은 전통적으로 계승해 온 시조의 정형률에 의거하여 표현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새 사상이 요청하는 새 형식을 창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최남선은 새 시대가 요청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대담한 악조로써 1연 7행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는 한 연만 보면 자유시이지만, 각 연의 대응되는 행들끼리는 모두 일정한 자수율을 지키는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조연현은 정형성을 깨뜨렸다는 점에서는 ‘한국 시가사상 혁명적인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보면서도 각 연 대응 행끼리의 정형적 음수율 때문에 자유시형의 음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는 ‘형태상의 불안정성’을 말하고 있다.⁵⁷⁾ 신체시가 우리의 자유시형의 형식에서 크게 이탈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운율을 포함한 시의 형식에서도 그러하고 관념의 형상화란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를 위한 최남선의 시험과 시행착오는 근대적인 자유시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값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신체시가 서구의 시가 양식을 수용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형식시험은 재래 시가의 엄격한 규범에 얽매인 정형률에서 벗어나서 율격적인 자유를 모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시의 형식을 시험하겠다고 시행의 길이는 자유스럽게 하였으나 각 연의 대응 행끼리는 음수율적 정형에 구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순된 작업이 된 셈이다. 그러나 한 연 안에서는 자유율을 지향하여 자유시적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신체시의 외형의 틀이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완화되고 주제의식도 생경한 계몽성에서 벗어나 관념이 어느 정도 정서화되다가, 문명개화라는 적극적인 주제로 발전하며, 나중에는 정형에서 해방된 작품으로 되는 것만 보아도

57)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pp.117~118 참조.

신체시의 창작 의식과 실천은 자유시형으로 나가는 하나의 긍정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시가 한편으로 가지는 진보성 내지는 수용성은 근대 전환기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시를 통한 육당의 새로운 형식시험은 자유시로 계속 발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육당의 율격 의식에 결정적으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육당이 매우 분방한 자유율을 지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 연의 대응 행들 사이에는 일정한 규율에 맞추려고 애썼듯이 그의 시험은 매우 의식적으로 계산된 것이긴 했지만 자유시의 형식적 통어란 시적 개성을 마음껏 살리면서도 형식과 내용의 긴장 사이에서 리듬의 내적 통어라는 의미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새로운 시 형식을 위한 미적 노력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또 전문 시인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육당은 매우 의식적으로 새로운 시에 대한 형식시험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부정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전문적인 시인이었고 새로운 시를 위한 근대적인 시험은 최남선의 신체시 이후부터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신체시가 근대 자유시 형성의 유일한 동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유시의 출현에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의 새로운 면모로 구어체와 의성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 시는 이전의 개화가사나 창가보다 구어체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속도감을 수반한 문체 역시 간과될 일이 아니다. 또 신체시에는 행과 연에 대한 인식의 자취와 함께 구두점 사용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래 구두점 사용은 작품의 형태, 특히 운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구두점은 시작에 사용될 때 의미 단락과 단락 사이에 쓰이면서 그 한계를 명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다음 단락과 연결, 호흡 조정 문제까지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체시에 구두점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 역시 간과될 일은 아니다. 그 역시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의 근대적 성향이라고 보아야겠다.⁵⁸⁾ 이러한 신체시의 특징은 전 시가의 모습에서 수용성을 바탕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전통시가의 형식과 근대시가 양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58) 김용직, 앞의 책, p.95 참조.

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시는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육당의 실험적 모습으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의식보다 너무 앞섰으면서도 아직 순진했던 민족의식이나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모처럼 채용한 구어가 지닌 자연스러운 리듬과 음수율에의 집착하는, 이 이율적인 모습을 변화시키기에는 육당의 시적 미의식과 그 리듬 의식이 너무나 허약했다고 볼 수 있겠다.



IV.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

1. 항일 독립 정신과 민족의식의 고취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은 당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염원을 국민들에게 깊게 심어준 역할을 한 것이 개화기 시가였다. 따라서 개화기 시가를 학습하는 것은 그 시기의 항일 독립 정신과 민족의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러나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의병가사와 의병창가, 혹은 독립가류의 작품에 의해서만 위의 내용을 학습에 있어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8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개화기 시가를 작품별로 정리한 것이다.

시대 구분	작품명 (작품명 다음의 ‘종’은 18종 수에 수록된 수이다.)
개화기	(1)동심가(이중원)-6종 (2)애국하는노래(이필균)-6종 (3)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12종 (4)아리랑타령(민요)-4종 (5)가요풍송, 애국가(최돈성), 권학가(미상)-1종

표를 보면 개화기 시가는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아리랑타령」을 제외하고는 개화가사와 창가로 교과서에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학을 교육하는데 있어 개화기 시가 중 개화가사와 창가에 의해서만 국민들에게 독립의 염원을 심어주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개화기 시가의 문학을 다룸으로써 당대에 원하는 염원을 개화기 시가라는 전반적인 양식에 의해 출현하였음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항일 독립 정신과 민족의식의 고

취라는 주제를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장르인 개화시조와 기존에 실려 있는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를 통하여 살펴보려한다.

아래에는 항일 독립 정신과 민족의식이 담겨 있는 개화시조들이다.

[가] 耳目도 늙과 又고 手足도 온전컷만
어이 업슨 굴네 쓰고 全身不遂 되단 말가
急急히 굴네 벗고 完인되어.
(再完人)

[나] 이 몸이 이 世上에 草木同腐 ㅎ고 보면
上帝의 내신 命今 拒逆함이 아닐손가
同抱여 二天萬인 한 몸 되여 爲國獻忠
(順天命)

[가]는 이목구비와 사지가 멀쩡한데, 어이하야 나라를 뺏기고 듣도 보지도 못하는 병신이 되었는가를 한탄한다. 어서 빨리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떳떳한 사람 구실을 해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우리 민족이 한 몸이 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함이 곧 지상명령이라며, 국민들에게 위국헌충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전진호는 청년들아
가는 길 험타 말고 일심으로 나아가쇼
총검도 막지 못할 거슨 위국혈성.
(영은생 「애국가」)

위의 시조는 총검으로도 막지 못할 애국혈성으로, 왜적을 막는 일에 앞장서자며 쫓기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에 문학 교과서에 있는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는 대내적으로 ‘반봉건 근대화’와 대외적으로는 ‘반외세 자주화’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이필균이 「독립신문」에 투고한 애국 가사로, 개화 가사의 일반적인 특징인

4·4조의 전통적인 율격, 즉 4음보를 한 마디로 하는 음보가 둘씩 짝을 이루고 있다. 다소 직설적이기는 하나, 개화기 형편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각 절마다. 합가라는 후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애국하는 노래」는 작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항일 독립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존의 4·4조의 전통적인 율격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단결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단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식인들이 사용한 것이 문학이다. 따라서 개화기에 출현한 시가 문학을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문학의 형식과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 시대의 사회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인 항일 독립정신과 그 시기의 민중의식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2. 전통과 서구와의 혼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대의 시가 문학은 크게 개화가사·개화시조·창가·신체시 등⁵⁹⁾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인 양식과 서구의 양식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중 개화가사와 창가를 살펴보면, 이들은 당대의 문제를 드러내고 풍자·비판·고발하여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개화가사나 창가에서 보이는 문명개화의 역설이나 반외세 국권회복의 강조, 매국노들에 대한 규탄 등은 어떠한 문학 장르보다도 빠르고 직접적인 호소력을 지녔다.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시는 근대 자유시 출현의 요구 속에서 서구의 양식을 흡수하며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신체시는 그러나 현실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나 성찰보다 과장된 의식이나 외래의 사고를 표현하는 데 급급했다. 일본문학의 지나친 영향 속에서 진정한 근대시의 역할을 하는 데 크게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일병합

59) 이밖에도 시가 문학에는 민요, 잡가, 한시 등이 있으나 연구의 대상에 대하여만 논하고자 한다.

이라는 사건은 시가 문학에서 현실성을 거세하는 계기가 되었고 개화가사나 창가의 문학적 전통이 근대적 양식과 결합되어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걸리게 된다. 즉, 전통양식과 서구 양식이 혼재되어 하나의 완성된 양식으로 통합되지는 못하여 소멸되었던 것이다.

개화기 시가의 전통과 서구의 혼재된 모습은 이전 시기의 문학이 개화기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 봄으로써 근대문학이 과거의 문학과는 그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근대문학이 과거의 문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탕으로 두고 서구문학과 함께 나타났으며, 이를 흡수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즉 문학 작품을 시대적 특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교육적 활용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기능과 민중교화

이 시기 작가들의 성격은 기존의 저작층인 한문 식자들에다 신교육의 결과 다량으로 배출된 개화 지식인이 보태지고,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 계열의 지식인이 가담하여 이전에 비해 현저히 복합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의 작가들은 각자가 가진 현실인식의 바탕이 상이하므로 자신들의 의식구조를 독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자신만의 주장을 피력하기 여러 형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전통양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력하는 방법과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양식으로 피력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공통된 성격은 형식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교화, 계몽,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독자를 깨우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선각한 의식 상태에 있어서 당시 조선의 일반 독자를 교훈적으로 일깨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전 시기 작가들이 독자를 자신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파악한 것과 대비된다. 전 시기의

경우 한문 저작자들은 독자를 당연히 한문식자로 인식했을 것이며 국문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의식 상태가 당시 독자의 의식 상태와 차이가 현저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지은이 자신이 이 글의 향유자라는 생각보다 미자각 독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글의 내용이 교훈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전통수호적이든 개화지향적이든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가 전달되고 설득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까지의 지은이들은 아직 전문적인 시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도 자신을 시가문학의 창작자라고 여기기보다는 선각한 지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두 유형의 문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도구로서 고전시가의 외형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용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미 익숙한 외형을 원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이 비교적 용이하게 표현되도록 하는 배려를 보였다. 이 점은 이 시기의 문학에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된다.

V. 교육적 활용과 지도 방안

1. 교육적 의의와 활용

개화기 시가를 문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왜 문학을 학습자에게 교육하려 하고, 어떠한 내용을 교육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올바른 문학 교육의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또한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7차 문학 과목 교육 과정의 설계에서는 문학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문학 감상에 있어서 작품과 작가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문학성과 독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교육에 관해서도 교사, 결과, 제재 중심 접근 대신 학생, 과정, 활동 중심 접근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문학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학을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매체 및 활동과 통합된 포괄적 문화 현상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이 교실에서만 향유하는 데서 벗어나,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제7차 문학 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 과목의 목표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곧 지식 목표를 다룰 수 있는 문학의 본질과 수행 능력 목표를 다룰 수 있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 태도와 목표를 다룰 수 있는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를 기본 영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문학과 교육을 바라보는 포괄적 관점 변화를 강조하여 문학과 문화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이 영역은 다른 세 영역과 수평적으로 나열되기 보다는 서로 중첩되는 관례라 할 수 있다.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⁰⁾

60)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p.304 참조.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징 (나) 한국 문화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개화기 시가의 교육적 활용 방안은 내용체계와 접목하여 활용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 시가를 문학 교과서의 내용체계에 따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우선 문학의 본질 면에서 문학의 기능을 학습하는데 개화기 시가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문학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문학이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지·정·의의 측면에서 문학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문학을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과 인간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그 중 효용론의 입장에 서되 현실적인 기능보다는 인간의 사고 및 삶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과 관련되는 학습에서는 문학을 다른 어떤 활동의 하위 활동으로 규정하지 말고, 포괄적인 주체의 삶과 관계지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은 문학이 지닌 인식과 발견의 기능 이해하기, 문학이 주는 미적 효과와 정서 고양의 기능 이해하기, 문학이 지닌 반성과 성찰적 특성 이해하기 등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② 문학이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문학이 개인의 삶에서 지니는 의의와 공동체의 삶에서 지니는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문학의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통합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문학은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세계와 접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하나의 교양이자 제도로서 문화적 특성을 강하게 가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학 활동을 통해 인지·정의·미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고양하는 동시에, 문학을 매개로 해서 문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그러므로 이 내용과 관련된 학습에서는 자아 탐구를 위한 문학과 민족 공동체, 언어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가치 탐구를 위한 문학을 고르게 다루어야 한다.

이 내용은 문학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 이해하기, 문학 공동체의 개념과 의의 이해하기, 문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고와 의사소통 특성 이해하기, 민족 문화의 가치 이해하기, 문학적 문화의 특성 이해하기 등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한다.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문학 활동의 경험을 돌아보고, 문학이 가지는 공동체 통합적 기능을 탐색하며,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실제 문학 활동을 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⁶¹⁾

이 중 효용론의 입장에서 학습자에게 문학을 교육하는 데 있어, 개화기 시가의 활용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시가는 개화기라는 혼란한 시대에 등장한 점에서 미적 기능보다는 효율성과 교술성의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개화시조 중 다음의 작품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p.306~307.

태평양 너른 물에 순풍 맞나 듯출 달고
등등 써서 오는 비야 향긋는 곳 어디디뇨
못노니 문명을 실엇거든 한반도로.

(「한반도로」)

위의 시조는 서구의 신문명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문명 유신을 이룩하고, 힘써 국가를 부흥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대한 젊은이들에게 봉건·보수의 잠에서 깨어나, 서구의 신문명을 받아들이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신문명을 실은 배거든 한반도로 오라며 그에 대한 높은 갈망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내용의 시조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한다면, 문학작품은 그 시대의 현실을 수용하여 필요한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화가사나 개화시조를 인용하여 당 시대의 사회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어떠한 매체의 활용도가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한 후, 개화가사나 개화시조 등의 작품을 예로 드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습자가 문학을 감상·비판하는 방법 중 효용론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② “문학이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라는 영역에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의식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려는 수단으로서 개화기 시가를 이용했음을 언급하고,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당 시대의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문학을 사용한 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학 교육의 내용체계에 있어 문학과 문화를 다루는 하위 내용에서 개화기 시가의 활용 방안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학과 문화의 하위 영역인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이해 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문학 활동의 본체는 한국 문학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문학 활동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학생들의 문학적 사고와 경험이 한국 문학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학 과목이 국어과 안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내용은 항목 진술 그대로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이해하기, 한국 문학의 갈래 이해하기,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질 이해하기 등을 세부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들 내용을 학습할 때에는 지식 위주로 이끌지 말고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정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문학 교육의 중핵은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문학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적 사고와 가치관,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문학 능력을 고양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이해하기, 한국 문학의 대표적 작품 읽고 수용하기, 한국 문학사 전개의 내면적 원리 이해하기, 한국 문학의 지향점 이해하기 등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한다.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다양성과 활동의 세밀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경험의 다양성이란 문학의 발생기부터 최근의 문학까지 전형적인 작품을 두루 읽어야 한다는 뜻이고, 활동의 세밀성이란 하나의 작품을 치밀하고 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두 방향은 서로 대립되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작품의 수용 과정에서 일방적인 설명이나 안내보다는 학생의 수준과 관점에서 자유롭게 반으로 하고 반응을 서로 공유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⁶²⁾

이 내용 중에서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라는 영역은 한국 문학이 어떠한 흐름을 지니는지를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영역이다.

영역에서 한국 문학은 시대를 기준으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지고 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개화기 문학이 담당하고 있음을 반드시 언급할

62) 위의 책, pp.314~315 참조.

필요가 있다. 개화기 문학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단절된 상태에서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된 것으로 학습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사에서 개화가사와 창가, 신체시 이후에 자유시의 출현이 학습자에게 교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개화기 시가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시조가 어떻게 계승, 발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개화시조 교육은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만약, 개화시조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시조는 옛 장르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여지고 있는 전통양식의 일환으로만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문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海에게서 少年에게」라는 작품을 바탕으로 현재 문학 교육에 있어서 중시되는 대화 중심의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화 중심의 교수·학습법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수업에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수법이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한 과정과 활동 중심 접근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법을 보여 주는 것이 대화 중심 교수·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화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교수·학습법이다.

교수·학습 관점에서 볼 때 ‘대화’는 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수업 현장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핵심적인 교수·학습 절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화는 첫째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독자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이며, 둘째 독자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횡적인 대화이고, 셋째 전문가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는 대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독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

서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방식은 독자의 내적 자아들 간에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의 형태를 띤다. 내적 대화란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학적 사고들 간의 대화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때로는 문학적 정서와의 동일시를 통해 해당 텍스트의 세계에 공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망설임을 겪기도 하며 그것은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되물음의 형태를 띠면서 감상이 이루어진다. 공감하며 읽거나 거리를 두고 읽거나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문학적 사고를 이런 관점, 저런 관점과 견주어 보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흡사 독자의 내면에서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의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대화가 끝나면 다음으로 독자 간 대화, 즉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하여 문학의 감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독자간의 대화는 현실적 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횡적 대화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대화 방법은 자신의 문학적 사유를 공개하고 타인의 사유와 동등하면서도 횡적인 대화를 통해 문학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렇게 얻은 정보는 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교화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전문적 중개자로서의 교사와 학습자 사이, 다시 말하면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적 대화라는 특성을 지닌다. 종적 대화라는 것은 이 대화가 교사가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통제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으로, 이상적 독자로서의 교사와 현실적 독자로서의 학생이라는 차이에 근거를 둔 대화임을 의미한다. 이는 내적 대화, 독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나 횡적 대화 과정에서 오독으로 끝난 부분, 텍스트의 의미상 결락된 부분에 대해 교사의 지도 아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교사의 역할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의도를 가진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문학적 사유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전문적 중개인으로서의 교사와 학생이 나누는 대화는 근거 있는 해석을 타당한 해석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³⁾

이러한 대화는 일반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꼭 선조직으로만 이루어지는 절차

63) 최지현 외 6명,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도서출판 영락, 2007, pp. 290~293.

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계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독자가 개인적으로 작품에 대해 사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마련해야 다음의 대화가 가능하며 그래야 독자 간의 대화가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사유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독자 간 대화는 즉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자 간 대화가 과연 문학적으로 의미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교사와의 대화는 문학의 이해를 더욱 정교화한다는 점에서 차후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독자 간 대화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오독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화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감상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대화 중심 문학 수업 모형 제시

이 수업에서 활용하게 될 교수·학습 방법은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는데 최남선의 「海에게서 少年에게」를 학습 자료로 제시하려 한다. 「海에게서 少年에게」는 육당 최남선의 작품으로 『소년』 창간호에 게재된 작품이다. 창간호 권두에 실려서 당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작품은 신체시의 효시로 여겨지며, 고전시와 근대시들 사이에서 그 축매제 내지 징검다리 구실을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는 낡은 양식으로서의 한국 고전시가에 한 막을 내리게 하고, 그에 대체해서 본격적인 근대시가 형성, 전개되도록 일종의 정초 작업을 시행해 주었다는 것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개화기 시가들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문학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대화 중심 교수·학습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교수 · 학습의 절차

대화 중심 문학 교수 · 학습을 위한 수업의 절차를 ‘시 수업’을 전제로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절차	주요 학습 활동의 예
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와 관련 있는 문학적 지식 이해하기 · 대화 중심 읽기 방식에 대한 안내
시 낭송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분위기나 어조 파악하기 · 낭독자의 목소리를 선택하여 시에 맞게 낭송하기 · 시의 의미 예측하기
<대화 1> 독자 개인의 내적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텍스트에 근거하여 시 이해에 필요한 질문을 스스로 생성하고 답하기 · 상화 경쟁적인 읽기 중 스스로 가장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읽기(지배적 읽기)를 선택하기 · 독서 스토리 작성하기
<대화 2> 독자와 독자들 간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한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시의 해석과 다른 독자의 근거를 비교하며 대화하기 · 타당한 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 찾아보기 · 모호한 내용을 명료화하며 각 근거의 설득력을 비교하며 타당한 해석 내용 판단하기
<대화 3> 교사(전문가)와 독자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의 대화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 제시하기 · 대화 2에서 오독이 발생한 경우 수정하기 · 여러 관점 간의 경쟁적 대화를 통해 좀더 근거의 설득력을 비교 하여 타당한 해석 내용 판단하기
시의 의미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시의 의미 정리하기 · 모작, 개작, 모방 시 창작하기 · 독서 스토리 완성하기

<표 1> 대화 중심 문학 교수 · 학습을 위한 수업 절차와 주요 학습 활동의 예(64)

2) 실제적 교수·학습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우선 학생들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작품을 미리 읽어야 한다. 작품을 읽어보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미적인 경험 등을 ‘독서 스토리 쓰기’ 형태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미리 읽으면서 잘 모르는 시어나 표현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海에게서 少年에게」는 1908년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낯선 시어가 등장하며, 현대에서 쓰여지는 자유시와는 달리 학습자들이 접할 기회가 드물어 시를 읽는 과정을 통해 시와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 작품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약 100년 전의 작품이므로 지금과는 다른 표기법이라든지, 단어들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쓰지 않는 ‘서, ㅈ’ 등의 합용병서가 사용된다든지, ‘덕’이라는 글자를 ‘덕’으로 표기하는 경우, ‘나폴레옹’ 이 아닌 ‘나폴륄’으로 표기하는 것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시를 읽으며 시어의 사전적 의미를 우선 파악하고,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의 일상적인 사고방식, 관습적인 사유방식으로부터 문학적 사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의 안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사물과 세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특히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해석이나 감상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수업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석의 다양성’ 측면에서 상대방의 해석도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고가 대화 중심 교수·학습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사소한 부분을 꼬투리를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정당하다는 것을 과도하게 주장할 경우, 교사가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교사는 대화 중심 문학 교수·학습 방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질문

64) 위의 책, p.311 참조.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내적 대화를 유발하는 질문 방식에 대해서는 교사가 예를 들어 주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海에게서 少年에게」에 대해 독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면서 내적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이 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
- 이 시는 왜 시라고 할 수 있는가?
- 이 시는 어떤 상황(시적 화자, 어조, 분위기)을 말하고 있는가?
- 이 시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는가?⁶⁵⁾

이러한 질문에 학습자들은 ‘시인은 바다가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왜 시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가 않아요.’ 등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교사는 이러한 대답도 학습자에게는 감상에 있어서 유용한 대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대답을 작품을 이해하는 대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 시는 시적 화자를 ‘바다’로 내세워 자신의 하고 싶은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서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바다’가 되었다면, 인간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인지를 물어 볼 수 있다. 또한 예전에 바다에 가본 경험이 있다면, 바다를 보며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를 물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과정은 수업을 하기 전의 준비 과정이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위에서 제시한 질문을 바탕으로 시의 내용을 독자 스스로의 내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시적 화자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독자의 내적 대화를 통해 찾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에 나타난 각 연의 시적화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대답을 독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65) 최지현 외 6명,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도서출판 영락, 2007, pp. 295 참조.

연	시	시의 화자 및 상황 이해
1 연	<p>터……르썩, 터……르썩, 툃, 썩……아. 짜린다, 부순다, 문혀 바린다. 태산(태산) 갓흔 뉘흔 뉘, 뉘태 갓흔 바위스들이나, 요것이 무어나,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짜디 하면서 짜린다, 부순다, 문혀 바린다. 터……르썩, 터……르썩, 툃, 튜르릉, 콧.</p>	<p>시적 화자가 사람이 아니라 자연물인 ‘바다’임을 알게 한다. ‘바다’가 세상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바다’는 무서운 기세로 모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있다.</p>
2 연	<p>터……르썩, 터……르썩, 툃, 썩……아. 내게는, 아모것, 두려움 업서, 육상(육상)에서 아모런 힘과 권(권)을 부리던 자(자)라도, 내 압헤 와서는 썩썩 못하고 아모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디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압헤는. 터……르썩, 터……르썩, 툃, 튜르릉, 콧.</p>	<p>‘바다’와 대립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찾게 한다. ‘바다’는 육지의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다.</p>
3 연	<p>터……르썩, 터……르썩, 툃, 썩……아. 나에게, 덜하디, 아니한 자가, 지금까디, 업거든, 통기 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나팔룬*, 너의들이냐, 누구 누구 누구냐 너의역시(역시) 내게는 굽히도다, 나허구 겨르리 잇건 오나라. 터……르썩, 터……르썩, 툃, 튜르릉, 콧.</p>	<p>3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시황제, 나팔레옹’이 어떤 대상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습자들이 생각해 보게 한다. 위 대상은 절대 권력자들을 상징한다.</p>
4 연	<p>터……르썩, 터……르썩, 툃, 썩……아. 도고만 산 모를 의지(의지)하거나, 도스쌀갓흔 덕은 섬 손스벽만한 쌍을 가디고, 고속에 잇서서 영악한 테를, 부리면서, 나 혼다 거룩하다 하난자, 이리 돔 오나라, 나를 보아라. 터……르썩, 터……르썩, 툃, 튜르릉, 콧.</p>	<p>제시된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자들이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된 대상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편협한 시각의 인간을 말하며 이들을 비웃고 있다.</p>

5 년	<p>터……르씩, 터……르씩, 툃, 쫌……아. 나의 썩될 이는 한아 잇도다, 크고 길고, 널으게 뒤딛흔 바 더 푸른 하날. 더것은 우리와 틀님이 업서, 덕은시비(시비) 덕은쌘 온갓 모든 더러운 것 업도다. 도짜위 세상(세상)에 도 사람터럼, 터……르씩, 터……르씩, 툃, 튜르릉, 콧.</p>	<p>‘바다’와 짝을 이룰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바다와 짝을 이룰 대상은 푸른 하늘이며, 하늘은 세상과 사람과는 달리 넓고, 푸르러서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p>
6 년	<p>터……르씩, 터……르씩, 툃, 쫌……아. 더 세상(세상) 더 사람 모다 미우나, 그 중(중)에서 쪽 한아 사랑하난 일이 잇으니, 담(담) 크고 순정(순정)한 소년배(소년배)들이 재롱(재롱)터럼, 귀(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나라, 소년배(소년배), 입맛터 듀마. 터……르씩, 터……르씩, 툃, 튜르릉, 콧.</p>	<p>‘바다’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찾아보게 한다. 바다가 사랑하는 대상은 소년이며, 배포가 크고, 순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p>

다음으로 내적 대화를 통해 얻은 시적 화자에 대한 정보를 독자간의 대화를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어떠한 어조로 시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지도 함께 독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파악하게 한다.

시가 어떠한 어조를 갖느냐에 따라 남성적, 여성적 또는 강건, 온화, 우아, 비장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와 내용을 좀더 깊게 파악할 수 있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육사의 ‘광야’ 나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분위기와 어조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면 보다 명확히 어조의 의미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이 시에서는 바다의 강하고 거친 이미지와 ‘-다.’ 와 같이 명확히 끝을 맺는 어미와, ‘-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통해 남성적이고 거친 어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어조는 여성적인 부드러운 어조에 비해 시적 화자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을 독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찾아보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다시 교사와 독자의 대화를 통해 정교화시킬 수 있다.

끝으로 신체시는 전통적인 정형시에서 근대 자유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신체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용적, 형식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시조와 자유시를 제시하고 형식과 주제가 어떻게 다른지 교사와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독자가 대답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찾기 위해 정형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평시조 중에서 송순의 시조를, 자유시 중에서는 산문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자료로 제시하여 형식적 특성 및 내용적 특성을 생각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이 신체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 \ 작품	송순 「십년을 경영하여」	최남선 「海에게서 少年에게」	황동규 「즐거운 편지」
형식적 특성	① 초,중,종 3장 ② 종장의 첫 구절은 3글자	① 바다 의성어의 반복 ② 자유로운 율격 ③ 각 연에 대응하는 행간 형식의 정형화	① 산문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로움
내용적 특성	① 안빈낙도의 생활	① 문명개화 ② 자주 독립	① 기다림을 통한 이별의 정한 극복

3) 과제 제시 전략

독서 스토리란 문학작품을 읽고 느끼고 자기화하는 과정을 독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독서 스토리 쓰기는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 지던 고민, 갈등, 고민의 과정을 가시화함으로써 자신의 시적 사유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곳에 독자의 다양한 내적 자아가 지녔던 기대, 망설임, 기대가 무산되거나 확인되는 과정 등을 담을 수 있다. 또한 독서 스토리 쓰기 활동은 지배적 읽기를 수행하면서 그 기준이 되었던 다양한 근거를 가시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며, 텍스트에서 제공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세부적인 표현으로부터 시적 장치를 식별해 내고, 그 시적 장치가 시 텍스트에서 기여하는 바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토의나 토론 과정에서 접한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문학적 사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세 단계의 대화 단계를 마치고, 학생들 개개인이 내면화한 시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독서 스토리를 작성하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영상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좋다. 캠코더, 영상 편집기, 간단한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를 이용하여 시에 알맞은 음악, 소리, 문자, 이미지, 플래시 등을 결합하여 「海에게서 少年에게」를 영상시로 만들어 발표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개별적으로 하기보다 조별로 만들도록 하는 편이 좋다. 영상시를 발표한 후 수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학생들이 상호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과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평가 계획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판단, 수시로 이루어지는 조언 등은 문학 수업 자체를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평가의 중심에 서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조언하고, 수업 과정 중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대해 수시 평가를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질 것이다. 시험지에 의존하던 양적 평가방법으로부터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의 판단, 사후평가가 아니라 수업 상황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평가를 하게 되면 학습 과정 자체가 평가 과정이 되며, 상호 평가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평가는 되도록이면 교수·

학습 과정에서 평가하거나 수행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위에서 과제로 제시한 독서 스토리 쓰기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수업 시작 전에, 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부과했던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영상시를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한 후, 답 글을 통해 상호 평가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 교사가 평가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4. 대화 중심 문학 교수· 학습 지도안 구안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교수· 학습법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 지도안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전체 3차시 수업 중 2차시 수업에 대한 지도안으로 작성하려 한다.

대화중심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4. 개화기 문학 - 「해에게서 소년에게」 문학 (하) - 청문각
제 재	시의 일부분 바꾸어 쓰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이해한다. ·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한다. · 신체시를 문학사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 PPT자료, 교과서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시를 이해	- 전시 학습 확인	○ 우리는 전 시간에 시를 감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대화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방	· 대화라고 하는 것은 시인과 독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5	

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이해하기	<p>법을 배웠습니다. 이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대화란 무엇이지요? <p>○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네요. 시를 읽으며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작품을 읽고 시 속의 내용만을 수용하는 것이 독자의 내적 대화, 독자와 독자의 대화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를 통해 보다 깊은 시의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p> <p>○ 전 시간의 과제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을 읽어오라고 했을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해요.</p> <p>(흥미유발을 위하여 PPT 자료를 통하여 바다의 파도소리를 들려준다. 또한 항구의 분주함과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많은 물자가 이동하는 자료를 보여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에 나온 바다를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나요? ○ 그래요. 시인도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느낌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썼을 거예요. <p>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의미하는 것은 독자들과의 대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어요. 	
	<p>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 같아요. · 세상과 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에요. ·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곳이에요. 	<p>PPT 자료를 통하여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파도소리를 들려준다</p>
<p>학습목표 안내</p>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의 형식적·내용적 특징을 이해한다. ·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이해한다. · 신체시를 문학사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한다. 	<p>※ 직접적으로 제하지 말고 아이들이 유추해 낼 수 있도록 한다.</p>	

	<p>학습활동 안내</p>	<p><학습활동></p> <p>[활동 1]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활동 2] 바다와 소년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 보자. [활동 3] 각 연에서 의성어 표현의 반복 사용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자.</p>		
시 낭송하기	전개 1	<p>[활동 1] 각 연의 중심 내용 정리하기</p> <p>○ 자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내면서 읽는 낭송의 방법도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시를 시의 분위기나 어조를 생각해 보면서 낭송해 보도록 할게요.</p> <p>-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p> <p>○ 이제 각 연의 시구들을 통해 각 연의 중심내용을 파악해 볼까요.</p>	<p>· 바다를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이 떠올라요.</p> <p>- 1연 : 바다의 위력 - 모든 것을 부숨</p> <p>- 2연 : 바다의 위엄 - 두려움이 없음</p> <p>- 3연 : 바다의 기개 - 모든 것을 굴복시킴</p> <p>- 4연 : 바다의 호통 - 개화의 반대자를 비판</p> <p>- 5연 : 바다의 속성 - 맑고 깨끗함</p> <p>- 6연 : 바다와 소년 - 순진한 소년을 좋아함</p>	7
대화 1 (독자 개인의 내적 대화)	전개 2	<p>[활동 2] 바다와 소년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 보자.</p> <p>○ 이 시에서 바다는 의인화되어 화자로 되어 있어요. 바다를 화자로 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해요.</p> <p>○ 바다는 소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소년이 어떠한 속성이 있기에 소년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p> <p>[활동 3] 각 연에서 의성어 표현의 반복 사용이 작품 전체에</p>	<p>· 학생들은 자신의 내적 대화를 통하여 바다와 소년의 특성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다와 소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p> <p>· 형식적 특징을 알아보는 것으로 의성어의 반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p>	<p>이는 독자 개인의 내적 대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방향만 설정해주는 것임에 유의한다.</p>

		<p>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시는 의성어를 특히 반복하고 있어요. 의성어의 반복을 통하여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이러한 반복은 시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유시라는 형식적 특징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부정적 영향의 작용할까요? 	<p>정적 효과를 형식적인 특징에서 찾아 본다.</p>	
<p>대화 2 (독자와 독자 간의 대화)</p>	<p>전개 3 감상 넓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모둠별로 활동 2와 활동 3을 통해 얻은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하나로 정리해 볼 거예요. 활동지에 나와 있는 양식에 따라 정리해 보도록 해요. ○ 바다와 소년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 의성어 표현의 반복적인 사용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 독자간의 대화를 통해 시를 이해할 때와 혼자서 시를 이해할 때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는 새로움을 찾아 나갈 통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개화의 물결이다. · 소년은 그 문명개화를 실현해야 할 미래의 주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바다는 자신의 희망과 미래를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취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 의성어는 바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성어의 반복을 통하여 바다의 기개를 나타낼 수 있다. · 그러나 자유시의 형식적 특징에서 볼 때는 정형성을 갖게 되는 단점을 지닌다. · 혼자서 의미를 파악한 것 보다 더욱 넓게 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p>25</p> <p>★ 학생들은 활동지의 활동 순서에 따라 혼자서 파악한 내용과 다른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비교하며, 독자간의 대화를 통해 감상하는 것이 어떠한 장점을 지니는지 알게 한다.</p>
<p>대화 3 (교사와 독자)</p>	<p>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 정리하기 - 시의 내용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 이러한 특징 중 형식적 특징을 문학사의 한 흐름으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서 이해한 것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p>13</p> <p>※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p>

와의 대화)		<p>악해 볼까요.</p> <p>- 시를 이해하는 데 독자와의 대화와 전문가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것 같아요?</p>			있게 한다.
마무 리	차시예고 및 과제제시	<p>○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신체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p>			



모듬 활동지(예시)

토의 전 활동지	토의 후 활동지
I.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것	I.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모듬 활동을 하면서 해결된 점
II.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형식적 특징은?	II.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형식적 특징은 - 토의 후 전 활동과 달라진 점?
III.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내용적 특징은?	III.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내용적 특징은? - 토의 후 전 활동과 달라진 점?
IV. 자신이 내적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내용?	IV. 다른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더 알게 된 내용과 대화를 통한 문학 이해의 의의?

V. 결론

이 연구는 개화기 시가를 분석하여 그 특질과 장르의식을 살피고,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개화기시가의 장르의식과 역사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개화기의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 형성된 근대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화기의 한국은 전근대적인 봉건체제에서 서구식 근대화로의 변혁기에 처해 있었다. 강력한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구미열강과 일본의 압력으로 개국하게 되었으며, 1876년의 개항을 시작으로 개화된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개화된 문화는 근대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의병투쟁, 독립협회운동, 애국계몽운동 등 갖가지 양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원인이 되어 개화기 문학에서는 조선 후기 문학에서 보여지던 일상적 삶에 대한 솔직하고, 때론 과장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산문이든 율문이든 교술적 성격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역사적 격변 앞에서 진지해진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격이 이 시기 문학에 교훈적인 태도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개화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출현한 시가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보고 어떠한 장르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화 가사 중 「독립신문」 소재 개화가사는 갑오경장(1894) 이후 대한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외래문화의 유입과 적극적인 현실개혁 의지의 드높임을 위해 자연스럽게 등장한 문학 장르로 ‘개화기’라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화가사의 형식으로는 전대의 전통적인 율조(4·4조의 연속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내용으로는 자주독립·민권·교육 등 이 시기의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근대적 의식을 그 주제로 삼았다.

다음으로 「대한매일신보」 소재 개화가사는 을사조약(1905)을 시발로, 정미 7

조약(1907), 한일합방(1910)까지 일제의 식민지화라는 극한적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외세 배격의 범주도 <독립신문>의 가사와는 달리 일본으로 국한되어 창작되었다. 내용으로는 일본과 매국집단을 극렬하게 비난하는 우국적 내용을 띠게 되었다. 또한 「독립신문」의 개화가사가 독자의 기고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사회등에 실린 가사는 신문사측의 몇몇 논설진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작자명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들 가사는 대체로 개인의 서정성을 위주로 한 문학의 미적 측면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와 정치 현실을 비판한 논설 내용을 가사형식에 담았기 때문에 표현이 직설적이고 웅변적이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화가사는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교술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식적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개화시조에 대하여 개념과 형태 그리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화기에 이르러 시조는 문학의 본령인 서정성보다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는 급박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의 반영에 알맞은 형태적인 변개는 어쩔 수 없는 자체정비였다 할 수 있다. 변화된 형식으로 단형시조형의 채택, 종장 종구의 생략, 타령조 가미형의 개발 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화시조의 주제를 분석해 보면, 망국민의 통한·애국충정과 자주독립에의 기원, 일제에 대한 저항과 친일매국집단에 대한 규탄, 문명개화에의 열망과 내적 폐습·비리에 대한 자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화가사의 주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화시조가 개화가사와 함께 개화기 저항시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창가는 내용적인 면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개화와 신문명에 대한 갈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노래를 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은 창가가 민중성이라는 성격에 의해 민중들에게 널리 불려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신체시는 근대정신의 소산으로 전통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서구문화를 수용하려는 근대화 운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전통시가와는 다른 이질

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의 대표적인 것은 기존의 정형성의 형식에서 자율성의 지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구작삼편」 등에서 비롯되는 일련의 신체시에서 전통시가의 정형성을 벗어나려 한 것이라든지, 구어체를 채용하게 된 것은 한국시의 근대적 전개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또 다른 근거라 할 수 있다. 신체시가 준정형·준자유형의 특이성에서 점차 외형의 틀이 조금 완화되고 주제의식도 생경한 계몽성에서 벗어나 관념이 어는 정도 정서화되다가, 나중에는 정형에서 해방된 작품으로 극복 발전되는 것만 보아도 신체시의 창작 의식과 실천은 자유시 형성 과정에서 일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개화기시가의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일 독립 정신과 민족의식 고취, 전통과 서구와의 혼재, 사회적 기능과 교술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개화기시가를 문학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의 본질 면에서 문학의 기능을 학습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에서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에 대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학과 문화를 다루는 하위 내용에서는 개화기 시가의 활용 방안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V장에서는 이를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안에 적용하여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하여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을 자료로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개화기 시가의 장르 의식과 교육적 의의,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화기 시조의 구체적인 작품들과 현행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였으나 아직은 미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개화기시가의 총체적인 조명은 앞으로 추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 수록 제재의 형평성 확보와 통시적인 문학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라도 개화기 시가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1. 자료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상문연구사, 2003.
-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학사, 2003.
- 권영민, 『고등학교 문학 (상·하)』, 지학사, 2004.
- 김근수편, 『한국개화기시가집』, 태학사, 1985.
- ,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영신아카데미, 1975.
-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학사, 2004.
-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한국교육미디어, 2003.
-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도서출판 태성, 2004.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디딤돌, 2003.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민중서림, 2003.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지학사, 2004.
-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금성출판사, 2003.
- 박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형설출판사, 2004.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 두산, 2002.
- 신동한편, 『항일민족시집』, 서문당, 1975.
- 오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대한교과서, 2004.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두산, 2003.
-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청문각, 2004.
-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블랙박스, 2003.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문원각, 2003.
-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천재교육, 2003.

----- 『육당 최남선 전집』, 현암사, 1975.

2. 단행본

강승호 외 4인 공저, 『현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 양서원, 1999.

구인환 · 우한용 · 박인기 · 최병우, 『문학교육론』 4판, 삼지원, 2001.

구인환, 『근대문학의 형성과 현실인식』, 한샘, 1983.

구인환, 『문학 교수 · 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김기현, 『한국문학논고』, 일조각, 1972.

김상선, 『한국근대시의 이해』, 을유문화사, 1982.

김용직,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77.

-----, 『전형기의 한국문예비평』, 열화당, 1979.

-----,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 『한국근대문학논고』, 서울대출판부, 1985.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 『근대한국문학의 연구』, 일지사, 1973.

-----,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한국현대시론비판연구』, 일지사, 1975.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론』, 월인, 1996.

-----,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김학동, 『한국개화기 시가연구』, 시문학사, 1981.

노 철, 『시교육 방법과 실제』, 보고사, 2002.

문성숙, 『개화기 소설론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민병수, 조동일, 이재선, 『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5.

박을수, 『한국개화기 저항시 연구』, 성문각, 1985.

박철희, 『한국시사연구』, 일조각, 1980.

손오규, 『산수문학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학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
 이재선, 『한국개화기의 소설연구』, 일조각, 1972.
 조남현, 『개화가사』, 형설출판사, 197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4), 지식산업사, 1986.
 허남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출판, 1999.

3. 논문

- 일반 논문

강창민, 「개화기 시가 연구」, 『연세어문학』 16집, 1983.
 강현재, 「시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1.
 구자균, 「한말 우국경시가에 대하여」, 『문리논집』 4집.
 권영민, 「개화기 시조에 대한 검토」, 『학술원 논문집』 15집, 1976.
 김기현, 「개화기의 신시고-매몰된 현상윤의 시가에 대하여-」, 『한국학보 제 12집』, 1977.
 김상선, 「신시의 성격」, 『아카데미 논총 1집』, 1973.
 김영화, 「개화시가고」, 『제주대학보 9집』, 1976.
 김용직, 「개화기 시가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학』 12집, 1980.
 김윤식, 「개화기 문학 양식의 문제점」, 『동아문화』 12집, 서울대, 1973.
 김은전, 「국어교육과 문학교육」, 『사대논총』 19, 서울대 사대, 1979.
 ----, 「문학교육인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문학사상』, 1991,2.
 김준오, 「개화기 시가 장르 비평의 연구」, 『국어국문학』 22, 부산대, 1984.
 김태준, 「한국개화기문학」, 『국어국문학 68·69』, 국어국문학회, 1975.
 손오규,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학회』 14집, 1997.

- 송민호, 「개화시의 근대적 성격」, 『문리논집 7집』, 1963.
- 이동영, 「개화가사고찰」, 『영남공전 논문집 8집』, 1971.
- 전광용, 「개화기 문학의 진통과 시대상」, 『새교육 통권 160호』, 1968.
- 허남춘, 「사림과 시가에 나타난 자연관과 서정」, 『국문학보』 11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2.
- 현승환, 「황조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백록어문』 14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8.

- 학위 논문

- 강은혜, 「개화기 가사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79.
- 구중희, 「개화기 문학론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78.
- 김종건, 「한국 근대 초기문학론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1987.
- 김준태, 「우국가사연구」, 고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 김태진, 「개화기시조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82.
- 신명란, 「개화기 시조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1986.
- 이규호, 「개화기 한시의 양식적 변모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6.
- 이진호, 「개화기 가사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1981.
- 주승택, 「개화기의 한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4.

<Abstract>*

A Guidance Plan for Teaching and Study of Siga(Poetry)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Song Seong-Jong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Sohn, O-Gyu

This study is going to research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having about Siga of the Period in Korea's Opening 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and is going to study how can apply that in method of teaching and study.

For this, first of all we decided on the object of study as limited range regarding Siga(Poetry)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Because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is divided with various low-ranking genres and recognition of a genre is also reflected so as to be various every scholar. In a term called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it can make it include Donghak Gasa, an army Gasa, the national anthem type carried to 『Dockripshinmun』, enlightenment Gasa, enlightenment Shijo etc. carried to 『Daehanmaeilsinbo』. Thus we have proceeded study enlightenment poetry, enlightenment Shijo which appeared to 『Dockripshinmun』 and 『Daehanmaeilsinbo』 by study. Also this study isn't only to stop to study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but consider that we study it about plans to utilize educationally this and treat the singing and the new-style poetry to the objects of education in the poetry literature that appeared in the age of enlightenment in present literature education, we have proceeded study as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included this.

In chapter ii, we have looked into a social situation and a historical situation of Period of Korea's Opening which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literature was formed. These times were placed in the change times toward a western-style modernization from premodern feudalism systems. It had begun the opening of a port of 1876, while the civilized culture had come it had been having an aspect to coexist with the tradition and western modern culture, and this has been appear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9.

so as to be various socially and politically.

In chapter iii, we have watched them about a genre consciousness to have been in them as dividing by enlightenment Gasa and enlightenment Shijo, the singing and the new-style for a low-ranking genre of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We are able to check that enlightenment Gasa, enlightenment Shijo, the singing and the new-style poetry are having essay, openness, the people and expropriation character respectively with the largest characteristics.

In chapter iv, we looked into a meaning and the value for the history of literature.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reflects greatly urgency and crisis consciousness of these times, and it has been treating contents of a spirit of independence of resistance to japan and inspiration of national consciousness, we was able to confirm that this appeared essay character for teach it to the audiences with functions of literature.

In chapter v, we looked into educational utilization and guidance plan.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has been put the works in a present literature textbook, it was mainly enlightenment thoughts and independent song type of resistance achieved a state if looked into contents of the recorded works. We have written a draft of a guidance plan to apply the conversation center pedagogic that importance rears up during present literature teaching and study method as it makes this to data. In literature education, sollen of literature doesn't only show forms and esthetic senses of living of the ancients but also confirm ethnic identity, so there is it to thing that it has affected it to sense of value formation. Therefore, exactly to understand Siga literature in the age of enlightenment justly understands literature of the former times and also can confirm it that becomes the key which can know modern literature works. Furthermore if we educationally utilize Siga in the Period of Korea's Opening, students may know more effectively a development path of our history of literature, it can say that it is meaningful work in the educational sides called literature culture development.